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3월 28일(음력 2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 621 호

불교 왜곡 보도 발 붙일 곳 없다

종단협의회, 상시감시기구 '방송언론윤리위원회' 6월경 발족

방송 언론의 불교관련 보도를 상시 감시하는 (가칭)불교방송언론윤리위원회(이하 방송윤리위)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이하 종단협) 산하에 발족된다.

종단협은 3월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 상반기 내로 방송윤리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6월까지 방송윤리위를 발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국에 실무준비 업무를 일임하고, 보리방송모니터회 등 관련단체들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종단협은 방송윤리위의 예산도 3000만원 책정했다.

방송윤리위의 주요사업으로는 △언론 상시 감시체제 가동 △교계 모니터링 단체들과 업무공유 및 지원 △방송언론사 독려 및 홍보 △왜곡 및 선정보도에 대한 교계차원의 대책마련 및 홍보 등이 꼽히고 있다.

방송 언론에 대한 감시와 불교계 권익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2005년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서울의 수경사를 집중 보도함으로 사찰의 '육아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 보도는 자의적인 해석과 과장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반론보도를 받아들였다. 보리방송모니터회와 불교대책위원회가 나서서 실상을 밝히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결과였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사후약방문' 격인 활동 보다는 상시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종단협이 방송윤리위를 운영하는 것은 '불교전체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이어서 활동의 폭과 효과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신교계는 2001년 전 교단이 동참한 한국교회언론인회를 설립해 기독교 국가건설을 목표로 각종 언론매체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분석한 뒤 대처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도 1967년부터 주교회의에서 매스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한국불교박람회 볼 것 많네요"

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현대불교신문과 (주)제이컨벤션 주최로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불자연예인 남일우 김용림 부부가 혜안 스님으로부터 서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사진= 박재완 기자**

"전면적인 사면 · 경감 당부하노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교시, '불자삼륜' 수지 당부

"종단은 화합 승가이니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 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자들도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 경감 조치를 행할 것을 당부하노라."

조계종 제12대 종정으로 재추대된 법전 스님이 3월 21일 교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종정예하는 평소에도 승가의 제일 덕목인 화합을 대중들에게 늘 말씀해 오셨으며, 사면에 대한 것 또한 평소 생각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법전 스님은 또 '지계청정' '견성성불' '중생교화' 세 가지 지침을 거듭 천명하며 '불자삼륜(佛子三輪)'으로 수지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현실을 불자들은 외면하지 말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구제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정예하의 교시는 21일 종단 지도급 스님들의 종정 재추대 수락요청과 하례를 받은 이후 내려진 것으로서, 향후 모든 종도들의 신행과 수행, 종무행정의 지침"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I Love Buddha / 수행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ARS : 060-700-1080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인물經 세상鏡

아내 구하고 떠나간 박광진씨의 사랑

3월 17일 서울 신도림동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부인과 함께 도배 일을 하던 박광진(46)씨. 그는 불길과 유독가스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고 운명을 달리했다. 유독가스를 피해 8층으로 피신해 특수 유리를 발로 차 구멍을 내고 아내의 머리를 바깥으로 내밀게 해 숨을 쉬게 했지만 자신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을 거둔 것이다.

이 '애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는 애도의 물결이 넘쳤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아내를 살려내고 자신은 아내 곁을 영원히 떠난 한 남편의 사랑이 세상을 감동시킨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부들에게 '부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불자들은 우스개 소리로 아내나 남편을 '전생에 진 엄청난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귀찮은 존재란 말인가? 착실하게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란 말인가? 생각 나름이겠지만 부부 보다 숭고한 인연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 인연에서 인간 세상의 모든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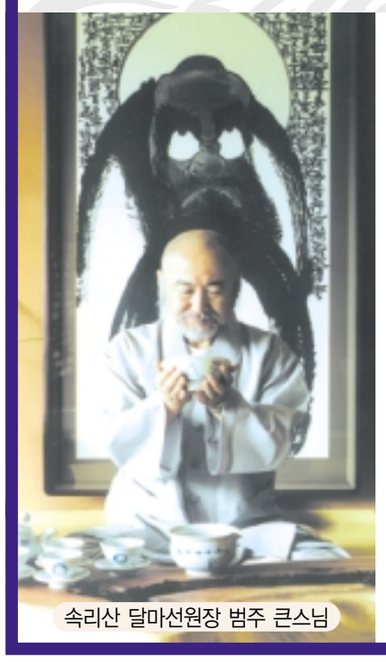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 선진화라고 착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요즘에는 '명절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실제로 명절직후 이혼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흐려지는 세상,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봄, 결혼의 계절이다. 꽃처럼 화사한 신랑신부들의 백년해로를 빌어본다.

박광진씨의 이름으로….

임연태 기자

봉 자비원 개원 및 부처님 삼존불 점안 법회 축


속리산 달마선원장 범주 큰스님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원이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정발산동에서 덕이동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간 부처님의 불법을 믿고 삼보에 귀의하신 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비원은 정법을 포교하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원을 통해 자비원은 대중과 함께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개원 및 삼존불 점안 법회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동참하셔서
큰스님들의 법문을 경청하시고 아울러 복된 선물도 많이 받아기시길 바랍니다.

◆ 개원법회일시 : 불기 2551(서기 2007년) 3월 31일(토) 오전 11시
◆ 참석큰스님 : 속리산 달마선원장 범주 큰스님
한국불교 정토종 종정 지산 큰스님
서울 자비원장 화담 큰스님
◆ 참가문의전화 : 031)917-1515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원
회주 도경 주지 도일(세목) 합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781-12 자비원



●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하차 5번출구 나오셔서
→ 버스 150번, 151번, 9701번, 마을버스 11-2번 승차
→ 덕이초등학교앞에서 하차 도보로 5분거리



조계종 173회 임시중앙종회 주목되는 안건은?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 '관심사'

종정 법전 스님 강한 의지 반영될 듯…승려법 개정안도 발의

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26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는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 승려 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헌 · 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조계종 제12대 종정으로 재추대된 법전 스님(왼쪽에서 세번째)이 3월 21일 합천 해인사에서 종단 지도자 스님들의 예방을 받고 퇴설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 개정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다. 총무원장 발의로 상정된 이 개정안은 종헌에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내용은 제162회 임시중앙종회 때 상정된 것과 유사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1994년까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 ·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사면 · 경감된 자는 사면 · 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 · 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사면 · 경감조치가 이뤄지면 부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종헌 개정안과 연동해 사면 · 경감 조치를 받은 자는 복적 또는 재득도 할 수 있도록 승려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3월 21일 종단 지도급 스님들의 종정 재추대 수락요청과 하례를 받은 자리에서 "대중화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사면도 대중화합에 도움 된다면 적극적 ·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종정예하께서 재추대되면서 종단 화합 측면에서 첫 관심사로 사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하려면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前 집행부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비춰볼 때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사유재산 종단 귀속 법안

이번 종회에서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 중앙종회의원 법진 스님 외 4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승려법 제30조 2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뼈대를 살펴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또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려는 구족계를 수계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 매5년마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과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징계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종법 개정안'도 주목할 부분.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징계 효과를 내기 위해 징계를 내릴 때 변상을 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형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징계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승려법, 총무원법, 호계원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말사주지를 제외한 주요 종헌 기구 종무원의 직위는 상호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종무원법 개정안'도 의미있다.

이번 종회에서는 이 외에도 '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종무원법 개정안'과 '사패산 터널 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계종 종비생 수행관인 백상원(비구 수행관)과 혜광사(비구니 수행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5월 20일 전국서 연등물결

봉축행사 준비 돌입, 전통등 전시 · 연등놀이 등 다채

꽃 모양이 부처님 머리처럼 곱슬곱슬해 붙여진 이름 불두화. 부처님 오신날 앞뒤로 만발하는 불두화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손길도 점점 바빠진다.

불기 2551년 연등축제의 서막은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가 연다. 전시회에서 한지의 은은함과 단청의 화려함이 전통의 향기를 맘껏 선보인다.

19일 오후 7시부터 인사동과 조계사 앞거리에서 열리는 '연등놀이'는 연등축제 전야제. 연희단의 아름다운 행렬과 흥겨운 공연이 인사동 일대를 환희심으로 가득 채운다.

연등축제 당일인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계사 앞거리는 전통문화의 장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진다. 연등만들기, 사찰음식, 탁본, 영산재 등 다양한 체험과 화려한 볼거리,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불교문화와 전통의 전래놀이가 진행된다.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는 흥겨운 화합의 장 '어울림마당'이 열린다. 화려한 의상의 연희단과 운동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이 함께 웃고 어우러지며 제등행렬을 준비한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제등행렬'은 오후 7시부터 동대문-종로-조계사로 이어진다. 용등, 탑등, 흰코끼리등, 봉황등, 연꽃등 등 10만여 개의 등불등과 수백여개의 커다란 장엄등이 감동을 주며 등의 바다를 펼친다.

연등축제의 피날레는 오후 9시 30분부터 종각사거리에서 펼쳐지는 '대동한마당'이 장식한다. 꽃비 속에 잊을 수 없는 연등축제의 감동을 함께 나누며 하나 되는 자리다.

남동우 기자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진산법회

30일 대웅전서 봉행



순천 선암사 제27세 주지 설운 스님(사진) 진산법회가 3월 30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스님은 2월 13일 선암사 적묵당에서 열린 재적승 총회(전산대회)에서 총 169명중 107명이 투표한 가운데 60표를 얻어 제27세 주지에 당선됐다.

설운 스님은 "종단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종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며 "신도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설운 스님은 1955년 7월 선암사에서 회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선암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1973년 국묵담(성우) 율사로부터 보살계 및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88년부터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1989년 태고종 사회부장, 2002년 경기북부 종무원장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관음사 산중총회 내달 20일

제주 관음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4월 20일 오후 2시 관음사포교당 도남 보현사에서 열린다.

입후보 자격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3급 이상의 스님으로서 제23교구(관음사 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이력서, 사진 등을 첨부해 도남 보현사(064-722-2829)로 접수하면 된다.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거주승 신고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14일부터 16일까지.

남동우 기자

독자와 함께 만드는 현대불교

본지 독자위원회 구성…지면 개선 · 기획 제안 등 '열린 편집국' 지향

현대불교신문이 제작의 중심을 독자에게로 이동합니다. 편집국 중심의 제작 관행을 버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편집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독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독자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가독성 높은 지면구성은 물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분야:** 현대불교 독자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10명
- **응모자격:** 현대불교신문 3년 이상 구독 독자
- **주요임무:** 기사에 대한 평가, 기획물 및 연재물 건의, 잘못된 단어사용이나 오탈자 지적, 지면개선 및 현대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 등.
- **처우:** 의견서에 대한 원고료 지급, 본사 간행 도서 제공 등.
- **신청서류:**
  - -자기소개서 1부
  - -'현대불교를 읽고' 의견서(200자 A4용지 1매 내외) 1부
- **모집기간:** 2007년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wwkim000@naver.com
- **발 표:** 2007년 4월 2일 붓다뉴스 홈페이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천태종 '괴문서' 관련자 고발조치

천태종은 3월 21일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관련 있는 괴문서 배포 관련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씨를 고발조치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문덕, 사회부장 무원, 교무국장 월도 스님은 이날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우편으로 각 사찰에 배달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2월 27일 김모씨가 이조은뉴스라는 인터넷언론에 글을 올렸다"며 "괴문건 관련자를 발본색원하고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5건의 괴문서는 총무원장의 가족문제와 공금유용 의혹, 종단이 출자해 건립한 건설사를 통한 비자금조성 의혹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 가르침 훤히 밝혀져 온누리에 펼쳐지이다
국운이 융창하여 남북통일 이루어지이다

국운융창 · 남북통일 · 법륜상전

2007호국팔만대장경대법회

불기 2551(2007)년 4월 14일(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10:00-10:30 문화행사 | 10:30-12: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12:00-13:00 공양, 문화행사 | 13:00-14:00 총무원장스님 법어
14:00-16:00 호국발원 대행진





法寶宗刹海印寺 문의 055)934-3105. 3106

동물원에서 죽은 동물위한 천도재

조계종중신회 서울대공원서

동물원에서 생을 마감한 동물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재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와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는 4월 5일 오후 1시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위령탑에서 동물영혼 천도재를 봉행한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수많은 동물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도재가 열리는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지장재일이다.

천도재는 분향, 헌화, 천도묵념에 이어 천도법문과 고유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천도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733-7277 **여수령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범불교 지지대회 열린다

종단협 등 29일 조계사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범불교 지지대회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강원불교연합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지역인 강원도에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위상 재고, 경제 발전 등에 큰 힘이 되기 위해 열린다.

행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하는 대통령 치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 스님의 법어, 한승수 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강원불교연합회장 정념 스님의 축사, 태고종 · 천태종 총무원장 및 진각종 통리원장의 격려사,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유치 발원문 낭독, 유치기원 서명 및 점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반쪽 귀환' 있을 수 없는 일

조계종 석가탑 출토유물 일괄 반환 입장 고수, 국 · 박 '명령해제' 절차 진행

"반쪽짜리 귀환은 있을 수 없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포함한 석가탑 내 출토유물이 일괄 반환돼야 한다."

조계종의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반환요청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의 지물류(紙物類)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계종은 "일부만 반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괄 반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불국사가 소유주로 명기돼 있는 석가탑 내 출토유물은 1966년 발견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돼 온 문화재로, 3월 26일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함에 따라 조계종이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교중앙박물관의 시설 미비와 보존 · 연구를 이유로 이관을 거부하다 조계종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자 결국 '반쪽짜리 반환'을 결정했다. 석가탑 내 출토유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국립중앙박물관이 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에 대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을 제외하고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3월 26일 해당 유물의 전시부스를 비워둔 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비단에 쌓인 종이뭉치(묵지서편) 등을 반환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22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실무자회의를 열고 "해당 유물이 빠짐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3일 현재 "석가탑 유물을 이관받은 것은 1967년 문교부장관의 '문화재이관 명령'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조계종으로의 이관을 위해서는 위 명령을 해제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문화재청에 이관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26일 이전에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불교중앙박물관 내 석가탑 출토유물 전시관은 비워둔 채 개막식을 진행하게 된다.

조계종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갖는 성보로서의 가치 외에도, 문화재 위탁 기관이 보존이나 연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 때문이다. **여수령 기자**

불교 리더스 포럼 개최

불교아카데미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사)불교아카데미(원장 이혜숙)는 불교계 지도자 등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참여불교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포럼은 △4월 3일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21세기와 4차원 경영' △5월 1일 박범훈 중앙대 총장-'불교음악의 세계와 문화경영 리더십' △6월 5일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대중신행결사운동의 역사와 한국불교 혁신의 과제' △7월 3일 엄홍길 씨(산악인)-'엄홍길의 정상경영학'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2278-3417 **김주일 기자**



"한번 와 보세요…캠퍼스에 법당 있어요"

새 학기를 맞아 각 대학 동아리들이 신입회원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신입법우 모집에 나섰다. 3월 19일 숙명여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교내에서 신입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과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보수비 전용 아니다"

MBC '뉴스24' 정정보도

"지난 2월 20일 '뉴스24'에서 보도한 월정사 문화재 보수 관련 내용 중 석탑복원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건물복원사업에 전용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팔각구층석탑은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등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지원한 예산은 스님 숙소 공사가 아니라 서별당의 외부 기와보수에 집행된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MBC가 3월 16일 마감뉴스인 '뉴스24'를 통해 '월정사 문화재 보수 지원비 유용'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이것만으로 훼손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과 방송사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미흡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동방불교대 '각종학교' 인가 추진

신임 학장 자월 스님 "6월말 교사 이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이 6월경 새 교사로 이전하고 각종학교 인가 추진에 나선다.

3월 24일 동방불교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자월 스님은 "현재 10억원의 재정을 확보했으며 4월말까지 10억원을 더 모아 총 20억원의 재원으로 6월말까지 새 교사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각종학교 인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있다"며 "반드시 각종학교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 유아교육, 간호 등의 학과 충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4월중 교육에 관심 있는 종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고 새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불사 관련 규제법령 시정해야"

실승, 세미나서 강력 주문

'규제위주의 각종 법령 때문에 온전치 못한 불사를 범람시켜 사찰 운영에 치명적인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3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성관 · 효림) 제3차 사찰경영연구 세미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위주의 법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규제 위주의 법령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 위주 중심의 법령에 의한 피해 사례와 문제점 분석 △전통사찰보존법, 개발제한법 등 사찰 관련 국가 법령 분석 △사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단 내 제도 개선안 등이 집중 토론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종단 차원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본 캠프에서 3년간 영어교육을 담당한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및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땁 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한국전쟁 참가 희생자들이 묻힌 펀치볼 국립공원 참배
-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외이메하공원.
- **-문화특강:** 영어캠프 현지 총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김민선 교수가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 010-6318-1976

공 고

선암사 수습대책위에서 선출한 주지는 원천무효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선암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 끝에 그 대안으로 총무원을 대표하는 스님과 수습대책위원장 그리고 선암사 전, 현주지 등 4인의 의견을 조율하여 대승적 차원의 화합과 원만한 사태수습을 위한 단일안을 성안하여 총무원에 제출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시행키로 하였으나 수습대책위원장 스님은 현주지와는 단 한번의 의견조율도 없이 일체무시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조율은 커녕 임의대로 재적승 전산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또한 **이번 선암사 사태로 인하여 종단에서 징계되어 정적된 스님을 선암사 주지로 선출하는 등의 상식밖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무원으로부터 2월 8일자 공문(태고총무 제21-138호) 본인이 보낸(선암 2007-01003호의 공문참조)에 보면 선암사 수습대책위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선암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의 4인의 합의안이 나와야 하고 전 주지는 현주지에게 인수인계가 선행되어야 할 뿐아니라 업무 진행과정으로 또한 새로운 주지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번 **선암사 사태에 관련되어 징계된 당사자는 선암사 소임직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위 합의안과 피선거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선암사 재적승 총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암사 주지 진산식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암사 수습대책위는 선암사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선암사를 더욱 분란과 반목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종단의 총무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재적승총회는 물론 **종단으로 부터 이번사태로 징계된 자가 주지로 선출되는 이러한 해괴한 사태에 대하여 현직 주지로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선암사 수습대책위에서 선출한 주지는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임승조

● 후원 : 전국태사모승가일동 · 전국 태사모불자일동 · 선암사신도일동

한지, 포교하고 지역 경제 살리고…

참좋은우리절 '사찰탱화와 전주한지의 만남' 개최



부처님전에 한지수의가 봉헌되고있다.



어린이들이 한지 공예를 체험하는 모습.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지역 특산품인 한지(韓紙, 한국 고유의 기법으로 뜬 종이) 홍보에 나섰다.

참좋은우리절은 3월 18일 전주 감색 한지에 순금가루를 넣어 그리는 고려시대 금니기법을 활용한 104위 신중탱화 조성을 완료하고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신중탱화 점안 및 한지수의 봉헌
한지공예·다도체험 등 행사 다채

이날 점안식에서 조계종 원로위원인 활안 스님(천자암 주지)은 법문을 통해 "잘사는 법은 항상 열려 있고, 번뇌 망상은 한낱 낭비일 뿐"이라며 "모든 일은 열심히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다 되게 해준다"고 말했다.

법문에 이어 참좋은우리절의 노보살 모임인 미타회 회원들을 위한 한지수의가 부처님 전에 봉헌 됐으며, 전주시가 한지로 만든 이불과 베게 등도 불전에 올려졌다. 또 참좋은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이 한지로 만든 장삼과 가사를 수하고, 송하진 전주시장이 한지 넥타이를 매는 의식이 진행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전주한지를 보전 · 개발하기 위해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한지산업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지 회일 스님은 "불교가 사회적 역할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다 해줘야 한다"며 "불교가 중생들을 위해 소득창출과 경제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로 '사찰탱화와 전주한지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한지체험의 장이 마련했다.

전주시는 이날 사찰 경내에 한 브랜드 홍보관을 설치, 한식과 한지 등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한지전시회에는 한지로 만든 가사, 장삼, 승복, 연등, 인형, 축원카드, 다(茶)상, 좌복 등 이 전시되고, 한지연등 소품바구니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지공예 체험전이 펼쳐졌다.

이밖에도 법구경 목판 인쇄 , 다도(茶道) 체험 등과 전통장류와 사찰음식, 전주비빔밥 시식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참좋은우리절 회일 스님이 '전통 한지산업 육성에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전주시 한브랜드과와 협력해 개최하게 됐다.

전주= 김원우 기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무료진료 · 치매노인주간보호 등 서비스



개관식에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해 100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이 위탁, 조계사(주지 원담)가 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3월 21일 개관식을 봉행했다.

지난달 1일 문을 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상 4층 규모로, 55개의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무료진료 · 치매노인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00여 명의 어르신이 회원으로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다.

개관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 스님,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가 자리한 종로지역 주민복지활동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02)742-9500

여수령 기자

"교각 스님 은혜 갚으러 왔어요"

대만 원조사 불자들 지장보살 원력 담은 경극·성가 부산서 공연

대만의 남쪽 도시 까오슝. 한국의 부산처럼 불심(佛心)이 강하기로 유명한 도시다. 까오슝의 대표적인 사찰 원조사(주지 경정) 대중들이 한국 불자들을 위한 선물을 들고 부산을 찾는다.

대만 불자들이 준비한 선물은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경극으로 꾸민 '지장보살전-바라문녀 어머니를 구하다'와 대만의 불교 성가(聖歌). 대만의 사찰이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평소 지장보살의 원력을 닮고 싶어 지장보살 사상 연구와 포교에 힘써온 원조사 주지 경정 스님의 오랜 원력이 담긴 방문이기도 해 더욱 의미가 깊다.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이 한국에서의 공연 준비 일체를 도맡았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원조사 사부대중은 194명. 원조사 신도들로 구성된 '김교각 경극단' 단원 60명과 대만 불교 성가를 들려줄 고웅시 고산부녀합창단, 원조사 여래저성 합창단 단원 120명 등이다. 4월 7 · 8일 오후 7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하루 한차례씩 열리는 공연을 위해 입국한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이뤄지는 이들의 방문 목적은 아주 뚜렷하다. 신라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의 고향땅을 찾아 교각 스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한국 불자들을 위한 공연을 여는 것이다. 공연에 차질이 없는 일정 내에서 통도사, 불국사, 운문사를 방문해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이들은 이미 1년 전부터 꼼꼼한 준비를 해왔으며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 5차례나 부산을 방문, 최상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미 대만에서는 여러 차례 공연을 가져 호평을 받은바 있지만 무대가 바뀌고 언어가 다른 한국 공연이라 소품, 분장, 조명, 특수음향 등에 한층 더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교각 스님의 고향땅에서 올리는 공연인 만큼 조금의 차질도 없는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지장보살의 대비심과 원력을 오롯이 전하겠다는 원조사 대중들의 마음이 읽히는 대목이다. 엄청난 경비에도 불구하고 일체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도 경정 스님의 뜻이다. 교각 스님의 땅에 살고 있는 한국 불자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란다.

이날 무대에서는 불교 성가도 불려진다. 불교 성가는 대만에서 음악계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황우지 교수가 곡을 쓰고 경정 스님 등이 작사한 곡으로, 대만 불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 준비를 맡게 된 수불 스님은 "중생 제도의 원력으로 중국 땅에서 교화와 덕행을 펴 보이신 교각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대만불자들의 신심에 새삼 감탄한다"며 "이번 공연은 이분들이 한국 불자에게 올리는 공양이니 많은 분들이 와서 그들의 신심과 원력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이며 7일은 경극, 8일에는 합창이 공연된다.(051)583-0999 천미희 객원기자

친절공무원 시상 요청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관) 회원 12명은 3월 19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한용택 옥천군수와 군정현황 및 사찰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사진).

이 자리에서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영규대사 추모재와 중봉충렬제를 함께 봉행할 것과 옥천불교사암연합회가 옥천군 친절공무원을 선정, 시상할 것, 지역의 범종단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 충북 지사장

선리연구원 1차 월례발표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4월 7일 오후 3시 서울 정법사 극락전에서 제1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법진 스님이 '중앙선원 <안거방함록>과 선종부흥'을, 김선임 화계사 기획실장이 '근현대 불교운동사에서 여성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서재영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조승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한다.(02)734-9653 여수령 기자

창원 성주사 정진설법회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가 부처님 출가-열반절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제10회 니르바나 정진 대 설법회'를 개최한다.

26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8일간 지안(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선(장성 백양사 유나) 일면(조계종 군종교구원장) 활안(조계종 원로의원) 법등(조계종 호계원장) 청강(부산 옥천사 회주)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흥교(성주사 회주)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문한다. 법회는 매일 오전 10시 20분에 시작해 법문과 108참회, 정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055)262-0108 여수령 기자

능인정사 이웃돕기 일일찻집

서울 자양동 능인정사 포교원(주지 법경)은 3월 30일 포교원 지하 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한다.

능인정사 포교원 신도회와 관음회 회원들이 마련하는 일일찻집은 올해 네 번째로, 수익금 전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여진다.

법경 스님은 "우리 주위에는 독거노인이나 난치병을 앓는 사람, 힘겹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많다"며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나눠준다는 뜻에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인연을 맺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02)3436-5268 국민은행 776-01-0013-511(예금주 능인정사) 여수령 기자

봉 축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초대 종정 추대 및 국태민안 기원 대법회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國師를 宗祖로 하고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원만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宗旨로 新羅 道義國師로부터 원천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佛法 中興의 圓融宗風을 宗統으로 삼아 그 法脈을 繼承한다.

법 요 식

◆일 시 : 불기 2551년 정해년 4월 3일 (음,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 경북 구미시 남통동 산 37번지 경상북도 금오산 자연환경 연수원
◆연수원 : 054)452-4509
◆문 의 : 054)464-4725, 054)464-4735 / 010-6339-9765, 010-4802-5288

- 본 행사에 동참하실 스님은 사전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초청하지 않은 타 종단 스님은 거마비 일체 지불하지 않음.
- 함께할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석능인 ● 총무원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선암사 홍매화.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⑥ 조계산 선암사

“차와 함께 맺은 인연 깊어요”

찻잎 따는 날이면 주민들 대거 동원되기도
선암사 녹차 명품 반열에 올린 ‘일등공신’
고로쇠물 채취 수입 마을 살림에 큰 보탬

조계산 남쪽 선암사는 태고총림이다. 절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고, 휘어진 길모퉁이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어서 오랜 고찰임을 증명한다.

맨 먼저 만나는 건물은 강선루다. 강선루 아래쪽의 홍교는 새로 보수를 하였지만, 옛 맛이 그대로 살아 있다. 강선루는 두 줄기의 물이 만나는 곳에 세워졌는데, 돌기둥의 길이가 제각각이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려한 선조들의 자연관이 그대로 살아 있다. 강선루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길은 여느 절과 다르게 길다. 굽이굽이 돌아서 만난 건물이 강선루인데, 여기에서 두 굽이를 더 가야 일주문이 나타난다. 녹차로 유명한 곳답게 야생차밭이 도처에 널려있다.

일주문에서 범종루, 만세루, 대웅전에 이르는 건물의 배치가 이채롭다. 단정한 건물들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 일주문에서 오른쪽으로 몇 발 내디딘 곳에 범종루가 놓여 있고, 그 뒤의 건물들도 각각 조금씩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데 흐트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삐뚤삐뚤 서 있으면서도 정교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선암사의 진면목은 건물 안의 벽화나 천정화까지 보아야 비로소 드러난다. 지금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창살 문양도 선암사만한 곳이 드물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암사를 선암사이게 한 것은 무우전 옆 620년 되었다는 홍매화다. 꽃샘추위 탓에 갓 피어난 홍매화의 꽃잎이 조금 오그라들었다. 사진작가 몇 사람이 홍매의 속살을 더듬고 있다.

선암사는 선맥과 함께 다맥이 유유히 이어져온 절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물론이요, 차를 좀 마신다는 다인이라면 선암사 녹차를 명품 반열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 수확량도 만만치 않아서 선암사에서 찻잎 따는 날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대거 동원되기도 한다. 차와 선암사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듯이 선암사 사하촌인 괴목 마을도 녹차와 인연이 깊다.

마을 뒷산이 거의 야생 녹차가 자라는 괴목 마을. 마을은 골짜기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승주읍 죽학리 2구. 마을 안을 한참이나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고로쇠물을 받기 위해 산으로 갔을 것이라 한다. 가게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북당골이라고 있지라. 비석 있는데, 부도가 있어요. 거 뒤로 북당골이고, 일주문 우측에 거가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가 새동네 땅. 찻집에서 송광사 가는 길로 냇물 가에 거가 옛날에 집터라. 밭이 있고, 쬐까만 다리 하나 있고, 거가 부도 하나 있어요. 공마당. 콩마당이라고 해요.”

이영선(64 · 죽학리 괴목)씨의 입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마을 이름들이 줄줄이 나온다.

“상밭뗑이, 산밭등이라고 해. 웃삼밭등, 아랫삼밭등.”

곁에 있던 장봉례(77 · 괴목)옹이 거든다. 마을 노인정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동네 어른들이 다 물 뜨러 가고, 여든 한 살 드신 분도 물 받으러 가” 한다.

몇 시간이 지나 어둑발이 성큼 마을로 들어선 후에야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물 안 나드라. 참말로 몸써리나게 안 나오네. 추워서 안 나옹가, 더워서 안 나옹가. 참말로 안 나오네.”

지막기(64 · 괴목)씨가 산에 갔다 왔다면서 한 마디 한다. 조계산 골짜기는 고로쇠나무가 많은데, 전부 선암사 소유인지라, 마을 사람들이 고로쇠물이 나올 때면 일정액의 세를 주고, 한 골짜기씩 맡아 고로쇠물을 채취한다고 한다. 고로쇠수액이 나오는 양은 날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한 해에 한 가구당 60통쯤 얻는다. 약 30가구쯤 되니, 고로쇠물로 벌어들이는 마을 수입이 1년에 1억원쯤 된다는 얘기다.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가 승려 생활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스님들 내려와 놀다가 해지면 올라가고 그랬죠.”

예전에는 스님들의 속가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옛날 스님들의 후손이 지금도 사느냐고 하였더니, 지막기씨가 “얼마 없어요” 하더니 손가락을 꼽아가며 수를 센다.

“꽃감, 동기생, 감금남 직 아부지,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하더니, “우와 많네. 여덟 명이나 되네.”

녹차 이야기가 나오자 저마다 한 마디씩 한다.

“동네 여자 전부 다 차 덖는 기술자이어라우. 이녁 묵을 것은 집에서 다 해요. 선암사에서 찻잎 딸 때도 우리 마을 아줌마들 딸올(따라올) 사람이 없다요.”

장연희(61 · 괴목)씨의 말이다. 각 집마다 자기 소유의 차나무가 있고, 거기서 찻잎을 따다가 각자가 덖어서 음용한다고 한다.

“꺼만 솥단지에다 해 갖고 다 덖지요. 몇 나무만 있어 갖고, 우리 묵을 놈만 해요. 아홉 번 덖은닥 한디, 내가 보기에는 더 덖읍디다. 내가 볶아봉께.”

그 차맛이 궁금하다고 하였더니, 기어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차를 대접해 준다. 은은하고 깊은 맛이 수준급 수제차이다. 선암사 골짜기에 차향이 가득하다.

선암사=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선암사.



괴목 마을 전경.

야생차 명인 **신광수** 씨

“상생의 원리로 덖어요”



국가 지정 유일한 야생차 명인 신광수씨(사진)를 만난 날은 노랗게 산수유 꽃등이 내걸려 있었다. 선암사 고매(古梅)도 꽃망울을 터트렸다. 차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선암사의 주지였던 부친에 대해 먼저 말했다. 그의 부친은 선암사 주지를 지낸 바 있는 용곡 스님으로 서산대사로부터 시작된 선암사 차맥을 이어온 분이다. 선친의 영향으로 차밭이 놀이터였다는 그. 그가 좋은 차의 조건으로 맨 처음 내세운 것은 재료였다.

전 세계적으로 차의 종류는 650종에 이른다. 그 중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20여 종 되는데, 80~90%는 야부기다를 비롯하여 1900년대 이후 개량된 것들이다. 그가 재료로 쓰는 것은 개량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소엽종이다. 수확량이 개량종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

평생 차를 마시며 서너 번 정도 소름이 끼칠 만큼 머리 속이 서늘해지며 맑아지는 진귀한 경험을 했다는 그. 최고의 차 맛을 위해 그는 지금도 손수 차를 덖고, 날마다 작업일지를 쓴다. 82년 동경에서 열린 세계다류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덖는 기술도 남다르다. “곡우 때는 22도쯤 기온에서 열흘 정도 자란 잎이라 낮은 온도에서 덖어야 하고, 입하 때는 30도쯤에서 자란 잎이라 가마솥 온도를 300도쯤 올려야 하지요.” 솥의 온도뿐만 아니라, 유념 방법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땔감이다. 그가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참나무, 감나무, 오동나무, 밤나무 네 가지이다. 다른 나무는 차향을 망치기 때문에 피한다. 보통 2년 전에 준비를 하여, 나무 특유의 진액이 빠진 후에 땔감으로 쓴다.

작년에는 일본의 차 전문 회사인 상다회와 차 수출 계약을 했다. 세계 최고의 차만을 취급하는 상다회에서 신광수 명차를 알아본 것이다. 2009년까지 100억원 상당의 차를 일본에 수출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상생이죠.” 재료 선택이나 제다과정, 땔감 고르는 데까지 상생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정종철(서봉)의 성명서는 거짓입니다.

흥국사는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종단에 무상기증 하였습니다.

청정계율종단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단과 총무원장 큰스님을 욕되게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성명서에 진실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고자 함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종철(서봉)은 2006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에 입종하였으나 장애자 성폭행, 여신도 성추행 등으로 강서 경찰서에 고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7년 2월 22일 제적된 승려입니다. 현 흥국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 어른 고(古)김삼두 부친께서 장유중학교를 설립하시고, 폐사지나 다름없던 흥국사 터를 매입하여 창건하였습니다. 본인 김용규는 창건주(신도회장을 맡고 있음)로서 흥국사 신도회 부회장과 총무, 교무 등 신도회임원들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종단을 찾아갔습니다. 전 흥국사 주지 정종철(서봉) 승려를 종단에서 제적해주시던지 옷을 벗겨 달라고 했습니다. 계율이 청정한 종단에서 새벽 예불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여신도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으며 사찰재산 수억원을 횡령하였고, 대한불교법화종에게 3억5천을 받고 절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으로 법화종 총무원장과 계약하였습니다. 이런 몰염치한 승려는 제적이 되어야 마땅하고 어떠한 종단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2월21일 종단스님들이 모여 법회를 하는데 정종철(서봉)의 가족인 동생이 스님들과 법당에 신나 한말 가량을 뿌리고 난동을 부렸으며, 여러 스님들은 치료중에 있고, 법회를 방해하여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흥국사는 창건주인 본인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법화종과 짜고 흥국사를 거래하고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원고로 정종철을 피고로 소송하고 있으나 절을 팔려고 약속하고 원고쪽의 소송이 맞다고 하는 사기 소송을 하는가하면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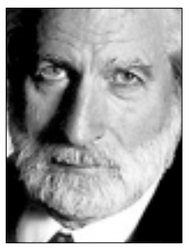
불기 2551(2007)년 3월 19일

명월산 흥국사 창건주 · 신도회장 김용규 합장


평화부문
온딤바


문학부문
김남조


학술부문
유종호


포교부문
랭카스터


실천부문
비쉬누


특별부문
서인혁

제11회 만해대상 온딤바 가봉대통령 평화부문 수상

제11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가봉공화국 봉고 온딤바 대통령이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 11회 만해대상 평화부문에 가봉공화국 봉고 온딤바 대통령, 문학부문에 김남조 시인(숙명여대 명예교수), 학술부문에 유종호 연세대 석좌교수, 포교부문에 루이스 랭카스터 前 버클리대 교수, 실천부문에 비쉬누 니스트리 회장과 네팔기자연맹(PNJ), 특별부문에 서인혁 국술원 총재가 각각 선정됐다고 3월 19일 밝혔다.

봉고 온딤바 대통령은 1967년 가봉공화국 제 2대 대통령에 취임 이래 가봉을 40년간 이끌어오며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꾸준한 기여를 해 온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남조 시인은 15권에 이르는 시집을 발간하며 60여년동안 생명사랑과 인간구원, 그리고 종교적 갈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형상화하며 시단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영문학자인 유종호 교수는 비평가로서 특유의 해박한 문헌 섭렵과 균형 감각 및 통찰력, 그리고 밀도 있는 해석과 문체로 한국현대문학 연구에 일가를 이루어 온 업적을 인정받았다.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는 한국불교를 서구에 알리는데 선구적 역할과 함께 1967년부터 버클리대학에서 다수의 한국불교연구자들을 배출했다.

비쉬누 니스트리 회장이 이끄는 네팔기자연맹은 2006년 4월 오랫동안 갸넨드라 국왕이 지배해온 네팔의 독재왕정을 무너뜨리고 네팔 민주화의 봄을 가져온 주역으로서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외에도 특별상을 받는 서인혁 총재는 1958년 부산에서 민족무술인 국술원을 창립한 이래 50여년동안 한국전통무술의 현대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세계화하는데 크게 진력한 점이 선정 사유다.

한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오후 3시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경기북부불교합창단연합회 창립



경기북부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정봉길)가 3월 16일 의정부 컨벤션센터에서 창립했다. 연합회에는 의정부 동두천 고양시 등 8개 시 불교합창단원 3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연합회는 5월 11일 7시 30분 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제3회 경기북부불교음악예술제'를 개최한다.

조지아대 장학생 운문사 템플스테이



미국 조지아대 장학생 20명은 3월 13~15일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에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조지아대 장학생들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운문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참선과 다도, 발우공양예불, 연등만들기 등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 입학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3월 21일 사찰음식문화학과 1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과 대중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된 사찰음식문화학과에는 22명이 입학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은 "사찰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나서달라"고 격려했다.(02)732-1206

노숙인 위한 무료법률봉사 협약식



보현의 집(원장 지거)은 3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상공회의소빌딩 4층 봉사단 사무실에서 삼성법률봉사단(단장 서우정)과 '노숙인을 위한 무료법률봉사 결연협약'을 체결했다. 봉사단 소속 변호사들은 앞으로 노숙인 복지시설인 보현의 집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미륵종 승계수계법회 봉행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승계 수계법회를 3월 22일 경북 감포 성봉사(주지 혜연)에서 봉행했다. 이날 승계법회에서는 영경 혜진 대덕 보현 대오 스님이 수계했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초발심을 잃지 말고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력해 인천의 사표가 되라"고 당부했다.

일주문



화계사 특별법회 참석

통도사 축서암 수안 스님은 3월 25일 서울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특별초청법회에 참석해 '교(敎)와 선(禪)을 넘어서'를 주제로 법문했다.



구산스님 제자 초청법회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 주지 도제스님은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삼존불 점안 기념 구산 스님 제자 초청대법회를 개최한다.(062)223-3168



출가수행 참가자 모집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7박 8일간의 출가수행 '참 사람의 향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前 백양사 운문선원장 일수 스님이 교수사로 참여한다. (061)533-3521



부처님일대기 대중강좌 입재

조계종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원장은 3월 28일 교육관에서 '출가 · 열반 · 봉축 맞이 대중강좌' 입재식을 연다.(02)735-2428



성지순례 개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윤갑 회장은 3월 24부터 25일까지 보은 법주사에서 4차 임원단 회의 및 성지순례를 개최했다.

"수행하는 사찰로 거듭나요"

중창불사 1000일 기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1000일 동안 절 밖 출입을 삼가고 중창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겠다."

지난해 12월 봉은사 주지에 취임한 명진 스님(사진)의 첫 일성이었다. 이후 스님은 바깥출입은 물론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며 절수행과 기도에 매진했다. '봉은사'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 때문일까? 스님의 이러한 행보는 불교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처음엔 저 자신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요. 그러나 100일 정도 지나니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명진 스님은 12 · 7 법난 규탄대회와 94년 종단개혁에 참여했고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등 소위 '운동권 스님'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스님은 다른 사람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신을 끌고 왔다. 한 달에 한 번 직접 빗자루를 들고 사찰 청소에 나섰고,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며 봉은사 발전 방안을 고민했다.

3월 14일 열린 1000일 기도 100일차 법회 때는 △전통사찰에 걸맞는 가람정비 △신도조직의 활동 강화 △해외포교의 전진도량 건설 △이웃과 함께 하는 대사회사업 △도심사찰에 맞는 포교프로그램 실시 등 5대 영역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공표했다.

"발전방안의 핵심은 '수행하는 사찰' '아름다운 사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찰 불사나 포교 모두 수행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도들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사찰, 다시 와보고 싶은 아름다운 사찰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현재 근린공원 지구로 묶여 건물 하나 세우기 힘든 여건이지만, 이를 개선해 숲과 산책로가 있는 도심공원으로 만들고 참선수행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신도조직의 활동을 강화해 4년 내에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등 대 사회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직장인이나 CEO들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과 일요법회를 강화하고 장학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경 중국 연변에 수월선사 추모사찰 '수월정사(水月精舍)'도 개원한다.

의사결정이나 업무 처리를 종무실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발전계획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봉은사가 새로운 포교의 지평을 열어 가는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하나하나 차근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07년

총동문회 정기총회

귀의삼보 하옵고,
전국 각처에서 수행정진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동문스님들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본회에서는 회칙 제7장 제28조에 의거하여 제27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본회와 모교발전을 위하여 동문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 2551 ('07)년 4월 13일 오후 2시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본관4층 대강당
◆안 건 : 1. 2006년도 감사보고의 건
2. 2007년도 예산 심의의 건
3. 총동문회장 인준의 건
4. 본교 중장기 발전 기획 보고의 건
5. 본회 회칙 개정의 건
6. 기타의 건

※기타 문의사항은 동문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922-7881 / 929-7110 / FAX 02)929-6919 / http://ob.sangha.ac.kr

中央僧伽大學校 總同門會長 退宇正念

제9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9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 주제	자유 주제	
진각종 교학	2 편	① 법맥의 사자상승 ② 재가와 출가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 의 미 • 역사적 의미, 전개 • 지역적 전개 양상 • 현재적 의미와 현상 • 미래지향적 모습
불 교 일 반	3 편			
밀 교 일 반	3 편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모일정 : 접 수 마 감 - 2007년 4월 27일(금요일)
당 선 작 발 표 - 2007년 5월 29일(화요일)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2007년 11월 15일(목요일) 예정
◆ 당선작 상금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500만원), 선정 7편(편당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www. jingak. or. kr / e-mail : bubsung@jingak. or. kr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제2회 한국불교박람회’ 현장


연리지 불교공예사 천진불의 미소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마다 향내음 가득

110개 업체 및 단체 참가
한국불교 다양한 콘텐츠 한눈에



개막식 모습.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인사들.


전시장을 둘러보는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왼쪽 두번째).


개막직후부터 몰려드는 관람객.


전통된장과 청국장도 판매되고 있다.

“강화도 선원사 행사장에서 연잎차와 연잎 부침개도 먹어봤는데 자연식품이서 마음에 들었고요, 맛도 있었어요. 또 여러 부스에서 피어나는 향내음이 좋고 한복 승복등 전통 옷이 아주 예쁩니다”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불교박람회에 참가한 나디아 호프(30, 러시아 가수) 양의 소감이다.

박람회장을 꼼꼼히 둘러본 청암사 강주 지형 스님은 “불교문화의 모든 것을 한곳에 갖추고 있어서 현재의 한국불교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김장실 종무실장도 “불교의 유무형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전승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불교문화가 더욱 고양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과 (주)제이컨벤션이 주최해 ‘우리불교와의 특별한 만남’을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한국불교박람회에는 사찰건축, 사찰음식, 불교용품, 전통공예품, 차 메주등 전통식품, 다기 다구, 장례문화용품 분야등에 총 110개 업체 및 단체가 참가해 각 주제별로 300여 부스를 설치했다.

불교박람회에서 관람객의 눈길을 끌어 모은 것은 서각, 도예, 연등만들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또 행사기간에는 진각종 문화공연, 해동불교범음대학 범패시연, LMB싱어즈 음악공연, 설봉 스님의 도자기 전시회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마련돼 한국불교문화의 유무형 컨텐츠를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향연의 장이 됐다.

특히 성종사의 전매특허인 밀립주조공법의 독자적 기술이 공개되고, 혜안스님은 15m 길이의 대형염주를 내놓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박람회 관람 뿐 아니라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봉선사 조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불법의 진리를 갈구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등 주요 종단과 조계사 관문사등 서울지역 주요 사찰이 홍보관을 운영해 신행의 길을 안내했다.

한국불교의 유무형 자산과 문화역량이 총 집결된 한국불교박람회. 이 행사는 미래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21세기 미래문명의 대안으로서 한국불교를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불교계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3월 22일 열린 개막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 천태종 교육부장 세운 스님,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호당정사, 총지종 교육원장 화령정사,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 연예인 남일우 김용림 조춘 씨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홍파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제2회 한국불교박람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느끼게 해주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원효종 문화원장 석주 스님이 10m 크기의 종이에 달마도 퍼포먼스를 하자 참가자들은 그림위에 기원의 글을 써넣었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석주 스님 달마도 시연 모습.


법고 시연하는 스님.

성종사 밀납주조공법 공개 관심
석주 스님 10m 달마도 퍼포먼스


불화체험.


화려한 문양의 대형 목탁이 눈길을 끈다.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2> 시주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운 여름날 밭에서 땀을 흘리고 일하던 농부가 부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일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는 땀 한 번 흘리는 법이 없이 먹고 사는 부처님이 못마땅하여 물었다.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열심히 곡식을 가꾸어 먹고 사는데 당신네 비구들은 왜 하는 일도 없이 밥을 얻어 먹고 사는 것이오?" 부처님은 농부에게 "비구들은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많은 사람에게 좋은 법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의 밭을 일구기 위하여 신도들의 공양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출가한 스님이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배불리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하여 시주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이들의 과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가귀감> 62장에서 말한다.

於噫佛子 一衣一食 莫非農夫之血 織女之苦 道眼未明 如何消得

아! 부처님의 제자들이여! 그대들이 입고 먹는 한 벌의 옷과 한 그릇의 밥에 농부들의 피와 땀이 어리지 않은 것이 없고 베를 짜는 아낙들의 땀방울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도에 대한 안목이 밝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시주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불자(佛子)'는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의 아들이란 뜻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승려와 속인을 가릴 것이 없이 누구나 다 부처님의 제자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세상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로서 자신의 지혜로 참 성품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올바른 인과(因果)도 잘 알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처님과 신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시주를 받아 죽을 먹으면서 축원하되 그 참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 또한 단월의 정성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시주를 받아 공양을 하고 염불하면서 부처님의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이 또한 성현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得粥祝願 不解其意 亦不檀越 應羞恥乎. 得食唱唄 不達其趣 亦不賢聖 應慚愧乎]"

'시물' 그냥 생기는 공것으로 생각하면 잘못
공양 올린 사람들의 피 땀 … 소중함 알아야

라고 말하였다.

야운(野雲) 비구도 <자경문(自警文)>에서 도(道)를 닦는 수행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을 '부드러운 옷이나 맛있는 음식 같은 공양물을 함부로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곡식이 되어 나에게 이르기까지는 이 공양물에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것이다. 농부들이나 베를 짜는 처녀들의 피땀 어린 땀방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죽어간 벌레나 짐승들의 희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나만 이롭게 하는 일은 참으로 옳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미물일지라도 소중한 그들의 생명을 죽여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수행자의 처지에서 감히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땀을 흘린 농부라도 굶주림의 고통이 늘 도사려 있는 것이요, 베를 짜는 여인네라도 매서운 추위에 자신의 몸을 가릴 옷조차 없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하물며 땀 흘리는 일이 없이 오랫동안 손을 놀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행자라면 추위와 굶주림을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는가? 부드러운 옷이나 맛있는 음식에 들어간 그 깊은 시주들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 공양을 받는 일은 도 닦는 길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이다. 떨어진 옷이나 거친 음식이라 하여 시주의 은혜가 가벼울지라도 고마운 마음을 지닌다면, 시주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음덕(陰德)을 쌓게 될 것이다. 이번 생에 참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한 방울의 물도 시주의 은혜를 갚기 어려울 것이니라[自從耕種 至于口身 非徒人牛功力多重 亦乃傍生損害無窮 勞彼功而利我 尙不然也 況殺他命而活己 奚可忍乎. 農夫每有飢寒之苦 織女連無遮身之衣 況我長遊手 飢寒何厭心. 軟衣美食 當恩重而損道 破納蔬食 必施輕而積陰 今生未明心 滴水也難消]"

수행자의 몸에 걸치는 옷과 입에 들어가는 한 톨의 쌀, 거기에는 길쌈하는 여인네와 농사짓는 농부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시물(施物)을 받아쓰는 것을 그냥 생기는 공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잘못이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 사람들의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그 과보를 견디어 낼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인과(仁果)의 법칙이며 인연(因緣)의 소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을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주의 공양을 받는 일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경(經)에서도 "수행을 하지 않고 신도의 공양물을 축내는 것은 큰 도적"이라 하였으니 참으로 겁나는 일이다. 이 이치를 알고 있는 야운(野雲) 스님은 밥 한 술이 농부의 땀 한 말이요 시주의 핏물 한 말인 줄 알고 "이번 생에 참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한 방울의 물도 시주의 은혜를 갚기 어려울 것이니라[今生未明心 滴水也難消]"고 말하였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傳燈 一道人 道眼未明故 身爲木菌以還信施

<전등록>에서 이르기를 "옛날 어떤 수행자는 도에 대한 안목이 밝지 못했으므로 죽어서 목이버섯이 되어 시주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였다.

가나제파(迦那提婆) 존자가 비라국(毘羅國)에 간 일이 있었다. 그곳에 살던 정덕(淨德)이라는 장자의 집 정원수에 커다란 목이버섯이 자라는데 아주 맛이 있었다. 둘째 아들 라후라다(羅?羅多)가 그 버섯을 늘 따먹었는데 따내면 바로 다시 생겨나는 이상한 버섯이었다. 정덕은 집으로 초청한 가나제바 존자에게 이상한 버섯 이야기를 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전생의 일을 환하게 알 수 있었던 존자는 그 연유를 정덕에게 설명하였다. 정덕의 집안에서는 일찍이 한 스님에게 오랫동안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는데, 그 스님이 도를 깨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시주 받은 은혜를 생전에 도를 깨달아서 갚지 못했기에 그 스님은 시은(施恩)에 보답하기 위하여 금생에 목이버섯이 되어 갚고 있다는 것이었다.

금생에 도를 깨치는 것만이 시은에 보답하는 길이니 야운 스님은 도를 닦는데 전념하는 수행자의 맑은 삶을 게송으로 말한다.

菜根木果慰飢腸 松落草衣遮色身 野鶴靑雲爲伴侶 高岑幽谷度殘年

풀뿌리와 나무 열매 음식을 삼고
나무껍질 풀줄기로 몸을 가리며
뛰노는 학 푸른 하늘 구름 벗 삼아
높은 산 깊은 계곡 도를 닦으리.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다라니(陀羅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제작연도에 대한 문제부터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이관 문제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최근 관심의 핵심에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다라니를 염송하면 복을 얻고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이다.

다라니란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힘이 있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불교의 진리가 함축된 말을 의미한다. 비교적 긴 장구(章句)로 되어 있는 주문으로 총지(總持)·능지(能持)·능차(能遮)라 번역하기도 한다. 불법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않게 하는 힘이다. 진언, 주문과 같이 쓰이는 범어로 된 글이다.

다만 다라니는 긴 문장형식이고, 진언은 한 자에서 한 두 줄 사이의 짧은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라니와 진언은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지 않고 음사(音寫)했다. 보고, 읽고 외우고 염송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으로 인한 의미의 제한을 방지하자는 것과 그 신비성을 간직하자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다라니는 뛰어난 기억력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 총지란 하나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것까지 연상하며 다 기억한다는 뜻이고, 능지란 여러 선법(善法)을 능히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능차란 악법을 능히 막아준다는 뜻이다. 특히 밀교(密敎)에서는 진언(眞言)과 다라니를 지송(持誦)함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고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4>



심리적 문제의 해결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문제라 보고, 상담심리학에서는 각 조류별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을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심리학과 불교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세계를 빙산에 비유한다. 의식은 빙산의 보이는 부분이요, 무의식은 수면 아래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의식이란 한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을 말한다. 무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으로 떠올릴 수없는 생각이나 감정이다. 이 속에는 자기 스스로나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감정, 생각 또는 충동 등이 억압되어 있다. 이런 무의식의 내용이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하며,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조건없는 수용·존중 통해 인간적 조화 찾아야
불교적 해결 '삶이 苦' 인정하는 데서 출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가장되거나 왜곡된 증상, 억압된 경험을 감당 가능한 영역인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스스로 처리할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보는 심리적 문제의 해결법이다. '무의식의 의식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행동주의에서는 내담자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학습된 부적응 행동을 소거하고 적응적 행동을 새로이 학습하여 대치하는 것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행동 수정'을 통해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는 각 개인이 겪는 독특한 주관적 경험의 세계, 즉 현상적·경험적 장을 중시한다. 현상적 장 안에서 자아개념과 개인의 유기체적 경험이 일치하지 않아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불일치한 경험에 대해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하고, 실현 경향성을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을 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즉 인간 유기체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전체로서의 한 개인에 대한 수용 등을 통해 부조화를 조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 자체가 괴로움[苦]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의미의 삼법인(三法印)에서 앞의 두 가지, 즉 제행무상·제법무아가 곧 모든 것이 괴로움이란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바로 보고 인정하는 데서 인간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苦聖諦]에서 출발하는 사성제 가 바로 그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괴로움이며, 그 인간이 가지는 생로병사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해탈에 이르러 다시는 윤회전생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심리적 문제의 해결법, 인간 문제의 근원적 해결법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마음 그릇에 티끌 담지말고 '천년 보배' 담아야

수혜 스님 (운가사 주지)



선지식을 찾아서

'봄은 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의 가장 낮은 음성으로부터 온다.' 오세영 시인이 노래한 그 '봄'을 수혜 스님의 화사한 웃음속에서 발견했다. 스님에겐 갑자기 닥친 이 꽃샘추위도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끼는 듯 했다. 실제로 취재중 만난 스님의 주변인들은 한결같이 1년 365일 수혜 스님은 항상 따스한 봄날(?)이라고 살포시 귀띔한다. 무슨 의미일까? 이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풀렸다.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도 스님은 분신과도 같은 수유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바로 그런 스님의 자애로운 얼굴이 '봄'처럼 화사하다는 뜻이다. 그 '봄'에게 '봄날'의 지나간 얘기를 들으려니 스님은 "별로 잘나지도 못한 이 늙은이를 왜 찾아왔느냐"며 한사코 거절한다. 스님과의 인터뷰는 총 7층(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돼 있는 수유사회복지관을 일일이 스님의 친절한 안내로 둘러 본 다음에야 가능했다. 스님을 알려면 이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을 통해 그 어떤 보시라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답게 형편에 따라 법과 재물을 은혜롭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꼭 부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

>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답게 형편에 따라 베풀줄 알아야

과 법을 베풀어서 나와 중생의 마음 밑바닥에까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간탐심을 보리심으로 바꾸어놓아야 합니다."

스님이 10여년전부터 복지사업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보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보조금 없이 복지관을 운영하느라 스님은 수행정진 하는 것 이상으로 고행의 나날을 보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복지관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녁은 거의 국수나 라면으로 때웠다. 신도들과 그 흔한 외식 한 번 못했다. 외식할 돈이면 복지관 식구들에게 반찬하나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불자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더욱 승화시켜 동체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동체대비! 그것은 한 몸의 사랑이요, 동체대비에 입각한 보시는 내가 나에게 주듯이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이기에 여기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 받는 물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으니 많은 공덕이 있을거라는 자랑 섞인 보시는 자비보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은 모자람이 있는 보시입니다."

스님은 복지관에 갈때면 항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 준다. 보시가 해탈로 직결되려면 서로 동체라는 인식 아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내가 너에게'라는 상대적인 생각,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푼다'는 차등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온전한 해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보시는 평등한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평등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하지요. 하나의 법계 속에 살고 있는, 미래에 부처될 존재들끼리 기꺼이 나누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평등심을 유지해

> 동체라는 인식아래 평등 이뤄질때 보시는 해탈로

보시한다면 부처님의 평등성지를 얻어 해탈할 수 있으며, 능히 보시바라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주상보시를 고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체대비의 보시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더더욱 안됩니다. 우선은 베푸는 일이 중요하니 베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시한 것을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 해도 좋습니다. 결코 '무주상'을 강조하며 자랑을 막을 필요가 없지요. 오직 나와 남의 마음을 여는 보시를 끊임없이 행하다보면 모양을 내는 것은 언젠가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기 위해 복지사업에 전념하면서 스님은 정말 행복해졌다고 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그들이 편히 쉬면서 행복해할때 스님도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삶의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쓰는 만큼 우리 자신의 삶 역시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닫힌 마음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이는 곧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사랑과 자비를 찾아내고 키워나가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평화롭고 온건한 것이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경제적 부와 안락함만을 위해 선한 덕목, 즉 신념과 같은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타주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스님은 요즘의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우리 불자들은 사찰에 큰 불사를 한다고 하면 보시금을 잘 내는데 복지관 후원금 좀 내라면 고개를 돌린다는 것이다. 개신교나 가톨릭 등 다른 종교에 비해 봉사와 실천이 부족한 것. 또한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라는게 스님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우리 모두 '내마음'의 그릇 속에 눈앞에 보이는 하루의 티끌만 담지 말고 천년의 보배를 담도

> 타인 행복 위해 마음 쓰면 자신의 삶도 풍요로와져

록 합시다. 그 보배는 바로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베풀면서 마음을 닦고 환희심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기에 맞게 염불하고 기도 참선하며 마음자리를 밝혀야 하지요. 틀림없이 이것이 각자의 인생을 보배롭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나'의 등불이 되고 세세생생 나와 함께 앞길을 밝혀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스님의 당부가 절을 나와 삶의 전쟁터로 들어온 한참 뒤까지 여운으로 남는 것은 체험의 깊은 뿌리에서 우러 나온 살아있는 법문이기 때문인 것 같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수혜



수혜 스님은 1931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45년 김천 수도암에서 상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5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58년부터 칠불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40여년간 수행했다. 78년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9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10여년이상 복지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과 여성부 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6)

묻되, (뱀을 보고) 이게 뭡니까?
답하되, 가만히 두어라 실컷 놀다 가게

경허 스님이 서산 천장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여름밤이었다. 만공 스님이 큰방에 볼 일이 있어 경허 스님이 누워 계시는 그 앞으로 호롱불을 들고 지나가다 얼떨결에 보니, 스님의 배 위에 길고 시꺼먼 뱀이 척 걸쳐져 있었다.

만공 스님이 깜짝 놀라,

"스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 경허 스님이

"가만히 두어라. 실컷 놀다 가게."

하고는 놀라지도 않고, 쫓지도 않은 채 태연히 누워있을 뿐이었다.

얼마 후 뱀이 숲속으로 돌아간 뒤, 선사의 법문이 이어졌다.

"이런 데에 마음이 조금도 동요됨 없이 자기 공부에 정진해야 하느니라."

확실히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두려움에서 해탈한 대장부의 대무심(大無心) 경계를 엿볼 수 있는 선화(禪話)이다.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깊은 무심의 경지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와 같겠는가.

선 수행은 무심을 체득하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심의 도리를 직관적으로 통달한 뒤, 생활 속에서 무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대주 선사는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 해탈'이라고 하였다.

가지가지의 번뇌망상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면, 일체의 망상을 떠나 사는 이를 부처라고 한다. 모든 망상을 떠났으므로 망심이 없기에, 이것을 무심(無心)이라고 하고 무념(無念)이라고도 한다. 물론 참다운 무심은 오직 제8 아뢰야식의 근본무명까지 완전히 끊은 구경각(究竟覺) 즉 묘각(妙覺)만이 참다운 무심이다.

육조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내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無念)을 세워 종(宗)을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體)를 삼고, 무주(無住)로 본(本)을 삼았다"라고 하면서 무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대상에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無念)이니, 제 생각에 항상 모든 대상을 떠나서 대상에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아주 없애버리면, 한 생각이 끊어지면서 곧 죽어 딴 곳에 태어나니, 이것은 큰 착오이므로 배우는 사람은 명심해야 한다."



무심은 아무생각 없음 아니라
망상 다 떨어진 지혜의 자리

이처럼 무심은 바위나 고목과 같은 아무 생각이 없이 흐리멍텅한 무기(無記)의 상태가 아니다. 본래부터 청정하고 밝아서 물들일 수 없는 불심(佛心)인 것이다. 때문에 무심은 바꿔 말하면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할 수 있다. '불생'이란 한 생각 사량분별심을 내지 않아 일체 망상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고, 불멸이란 대지혜 광명이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불생'이란 적(寂: 고요함)이고 '불멸'이란 조(照: 지혜로 비추어 봄)이다. 또한 무심을 경전에서는 정혜(定慧)라고도 한다. 정(定)이란 일체 망상이 모두 없어진 것을 말하고, 혜(慧)라는 것은 대지혜 광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혜등지(定慧等持)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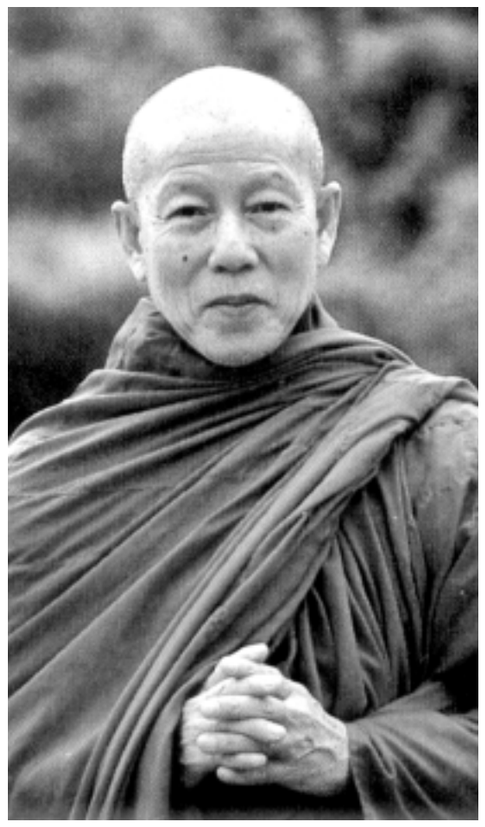
물론 선(禪)에서는 '무심에도 한겹의 관문이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보살행을 주문한다. 무심과 유심을 초월한 무심으로 부처행(佛行)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무심의 생활인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3월 13일 원적 고사난다 스님의 수행법

자비명상·보살행으로 '지금 여기' 깨달음 강조

'킬링필드'에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맞서
"집착 내려놓고 마음의 주인 되라" 가르쳐



3월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레버레이트의 쿨리 디킨슨 병원에서 원적한 마하고사난다 스님(사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킬링필드(Killing Field)의 대재앙을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맞선 캄보디아 평화운동의 상징이자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스님의 큰 원력(願力)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치열한 삶 자체가 수행'이요, '전쟁터가 바로 법당'임을 일깨운 지구촌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은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능케 한 자비명상과 보살행, '지금 여기'에서의 깨달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비행의 원천인 천진무구(天眞無垢)의 경지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국내에 유일하게 번역된 스님의 법문집 <한 걸음 한 걸음(Step by Step)>(무한 刊)과 <과연 누가 적인가(Who is the Enemy)> <평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Peace is our common goal)> 등을 중심으로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을 되새겨 본다.

 # 마음의 주인이 되라

스님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게.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에 통달할 것일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요한 법문'으로 강조한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이는 임제 선사의 '머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다(隨處作主 立處皆眞)'는 가르침과 상통한다.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스님에 따르면 '보리(菩提)는 깨어남, 곧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如實知見)'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에 대해 알아차릴 때 화는 모든 힘을 상실하며, 화는 곧 자비심으로 거듭난다. "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다'라고 할 만한 알맹이 따위는 없다. 화는 언제나 사소한 것들에 의해 촉발된다. 화를 내는 나는 어디에도 없다. 불법의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가끔씩 화가 나 온몸이 달아오르면 바로 자비를 떠올려라. 금방 열기가 식을 것이다."

#진리는 항상 눈앞에 있다

스님은 "불법은 지금 코앞에 있다. 그것은 언제나 없지 아니 한 곳이 없다. 불법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 결과는 단박에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는 선종에서 흔히 말하는 '도무소부재(道無所不在: 도가 없는 곳이 없다)'나 '촉사이진(觸事而眞: 손에 닿는 것 그대로가 진실)', '촉목보리(觸目菩提: 보이는 그대로가 깨달음)'와 똑같은 의미이다. 때문에 스님은 "행복의 비밀은 눈앞의 현실에 온통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고 말한다.

#양변을 초월한 중도의 평정

"평화에 이르는 길의 이름은 중도(中道)이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대립과 극단을 초월한다. 그것은 간혹 평정(平靜)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평정은 어떤 극단과도 조화를 이룬다. 평정이란 모든 다툼이 가라앉은 것을 뜻한다." 스님은 '중도는 평화에 이르는 길인 동시에 평화 그 자체'라고 말한다.

#내려놓기

마음 가운데 집착이 있는 한, 고통은 필연적이다. 고요한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깃든다. 집착의 이름은 탐욕, 분노, 질투, 갈망 등 108가지나 된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떠나가도록 놓아두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른바 '고통스럽게 잡고 있다가 행복하게 떠나보낸다'는 그것이다. 선(禪)에서 강조하는 방하착(放下着)과 같다.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지 않기

"감정을 먼저 다스리지 않는 한, 거기에 휘둘리고 만다.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사물의 실상은 절로 드러난다. 명상은 쾌락과 불쾌와 그 중립적인 감정을 지혜로 변화시켜 준다. 명상에서 멀어지면 좋으니 나쁘니 하는 분별로 치닫기 마련이다." 취사선택하는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경계에 매몰되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는 선(禪)의 원리와 같다. 스님은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것은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행복이다"고 말한다.

#지금 여기가 열반이다

열반을 저 멀리 밖에서 찾는 이들을 향해, 스님은 "지금 여기가 열반이다"고 일깨운다. 열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열반은 고통의 소멸을 뜻한다. 그것은 일체의 분별을 초월하기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며, 원인과 결과와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스님은 "열반에 이르면 모든 집착이 사라지며, 매 순간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순결하다. 업도 소멸된다"고 말한다. 스님은 "고통 없이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 살라"고 당부한다.

#자비 명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자신의 생각을 잘 살필지니, 만유에 대한 존경으로 빚은 사랑, 그로부터 피어나게 하십시오." 스님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온 세상 아니 계신 데 없는 부처님을 받드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비명상에서 적묵(寂默: 고요한 침묵)은 모든 행동의 원칙이다. 나아가 평화 만들기에는 명상과 겸양, 지혜가 필요하다. 중도의 길, 대립을 벗어난 길, 집착을 벗어난 길인 평화의 성취는 지혜와 자비의 완전한 조화를 뜻한다.

#걸음 걸음이 명상이자 기도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음 걸음이 그대로 명상이자 기도이다." 스님에 따르면 명상수행은 '하나뿐인 길'이다. 언제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바로 이번 걸음에 해야 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 행 게 시 판

제2기 100일 출가생 모집
정토회는 제2기 100일 출가생을 모집한다.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100일 출가는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등을 통해 자기변화 훈련과 공동체 생활 등을 체험하게 된다. (02)587-8990

염불수행 단기출가
용운사는 4월 9~22일 '정토선 염불수행 체험' 단기출가를 실시한다. 4월 9~15일 1차, 16~22일 2차로 운영, 선용 스님의 법문과 오후 불식, 염불, 묵언정진, 발우공양, 예불, 철야정진 등으로 진행. (043)878-3366

위빠사나 집중수행
봉인사는 4월 19~23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김열권 법사가 마하시 방법을 기초로 부처님 경전의 표적 관찰법을 병행해 사념처 가운데 법념처 중 오온과 12연기 관찰법으로 지도한다. (031)574-5585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승리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실용신안 등록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⑧ 타인의 모습이 내 마음의 거울

친구의 냉정한 어투 알고 보니 나와 같아

아침마다 "오늘은 좋은 말로 사람들 따뜻하게" 다짐

남탓 앞서 자기 돌아볼때 '진실한 불자'

바라는 손주가 생기지 않다

별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 온 K씨에게 뜻하지 않은 근심의 구름이 덮여왔다. 외아들 내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병원에 가 보니 양쪽 다 이상이 없다고 했다. 결혼 후 5년째가 되자 이제 근심을 넘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 '아이가 영 안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다. K씨는 무엇을 해도 좋은 줄을 모르게 되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길가다 어린 아이와 함께 가는 할머니만 보면 부럽고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아들 내외를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하는 만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K씨는 그 동안 절에 갈 때마다 손주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었다. '나의 정성이 부족했나?' 하며 조상님들께도 기도하고 천도재도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 왜 아무 문제가 없는 아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노력을 안 한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울고 나니 더욱 외롭고 슬픈 생각이 들었다.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서러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어 전화를 했다. 그 동안도 가끔 그렇게 했었으니 전화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나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오늘은 그 친구의 대답이 무척 쌀쌀하고 냉정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없지 않아. 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차가운지 K씨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다. 이상하다, 평소에 착하고 좋은 이 친구가 왜 이러는가 싶었다.

이 친구까지 나를 무시하는가 싶어서 넋을 놓고 한참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의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바로 K씨 자신이 남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참 안 된 일이 생겼다는 말을 하면 K씨는 "뭐 할 수 없지 않아? 자기 한대로 라는데. 아마 전생에 업이 많은가 보지" 하고 말하곤 했었다.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마음이었다는 것이 기억났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니 사실이었다. 다만 항상 습관적으로 말했을 뿐이지 그런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생각도 없었다. 그 만큼 K씨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무관심하고 냉정했던 것이다. 평생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내 말투더라고요. 그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내 말과 모습이 어땠는지를. 그 후 2년 동안 전 많이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좋은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 없이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마음부터 고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들 내외의 시험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K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만일 손주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가진 새 아기가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타인은 나의 거울

타인의 모습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언행이 나에게는 없었는지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바꾸고 싶은 언행이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변화해 가는 진실한 불자가 됩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도선사 보살계 수계법회
서울 도선사는 4월 2일 오전 10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전계대화상 현성 스님, 교수아사리 혜정 스님, 갈마아사리 혜성 스님 등이 수계법회를 이끈다. (02)993-3161

어린이 찬불가 율동 경연대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찬불가 율동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에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면 7일까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02)738-7860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단원모집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이 노래와 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 민족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포교사로서 문화사절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제16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청소년이 모집 대상이다. 오디션은 매주 토 · 일요일 오후 3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사무국에서 열린다. (02)725-7847

해동용궁사 은적사 등 삼사순례
해동용궁사신도회는 3월 28일 봄맞이 삼사순례에 나선다. 백제 무왕이 창건하고 나옹화상이 중수했다고 전하는 은적사, 백제 의자왕 때 창건된 불지사,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창건설화와 함께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미륵사지를 참배한다. 동참금은 3만원. (051)722-7744

능인선원 다라니 철야정진
서울 능인선원은 3월 31일 밤 10시~4월 1일 새벽 2시 30분 '스스로 서로 서로 하나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주말에 진행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은 12월까지 이어진다. (02)577-5800

부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천수경' (하)

박성민 서울시 금천구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持)
원해여래진실의(願解如來眞實義)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은 영원 속에 만나기 어렵지만 저는 이제 듣고 배워 간직하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치오리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불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순박하고 청명했던 어린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내던져뒀던 어머니가 주신 <천수경>을 찾아 들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며 한 글자 한 글자 가슴 속에 새기듯이 읽었습니다. <천수경>을 읽고 또 읽으며 저의 마음 또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림: 문병성

모래위의 누각 같았던 지난 세월

독경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

래 위에 세운 누각처럼 항상 무너지고 사라질 줄 모르며 아슬아슬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저는 쓸모없는 나무 등걸에 불과했습니다. 썩고 부러지고 나무꾼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그런 몹쓸 나무토막.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한 가장이 그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며 허황된 망상에 빠져 욕심과 만용으로 세상을 살아왔으니 그 얼마나 아둔한 삶이었겠습니까?

부처님의 참 마음을 알고 조금 더 빨리 깨우쳤다면 오늘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 것을…. 뒤늦은 후회가 가득할 뿐입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연약한 중생이기에 희생과 용서의 마음에 작은 촛불이라도 켜 내 주위를 단 한 번이라도 밝히면서 어두웠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싶습니다.

선도 악도 내가 스스로 짓는 것이며 또한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이 몸 한없이 낮추어 부처님 전에 절하여 탐(貪) · 진(嗔) · 치(癡) 삼독(三毒)에 빠져 있는 산란한 마음의 허물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처음 어머니 덕분에 만난 <천수경>. <천수경>을 읽다보니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른 불서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였을까요. 제가 선택해 읽은 경전은 바로 <불설대부모은중경>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곳은 높은 산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계시는 고향의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추억이 깃들었기에,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불설대부모은중경>을 통해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열 가지로 나누어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모시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모시며 그 어깨 위에서 대소변을 받으며 백천만겁 동안 수미산을 돌아도 갚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끝도 없고 높은데 이 못난 중생은 언제쯤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언제나 한 결 같이 말씀했습니다. "건강해라" "싸우지 마라" "아프면 약 사먹어라" 등 오직 못난 자식 걱정뿐입니다. 야단을 쳐도 그 밑바닥에 깔린 자식에 대한 애틋함을 알기에 어머니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귀한 사랑에 저는 무엇이 부족하여 이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이제와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를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나 웃고 울며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란 울타리가 곁에 있고 사랑이 넘치는 부처님의 자비가 곁에 있어 그래도 전 분명 행복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어두웠던 삶,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하였던 삶을 이제는 기억 속에서 지우고 가족의 중심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마음이 까맣게 절망으로 어두워질 때 부처님께 의지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갑니다.

비록 몸은 영어의 몸이 되어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부처님 곁으로 출가하여 내 이제 다시는 삼악도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 자신의 편협한 방식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며 여유를 찾을까 합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마음까지는 가난하지 않으며 조금 더 뉘우치고 배우며 거대한 사회의 미로에 다시 도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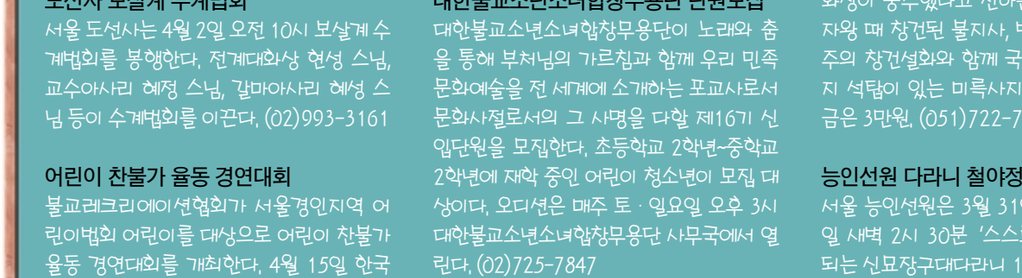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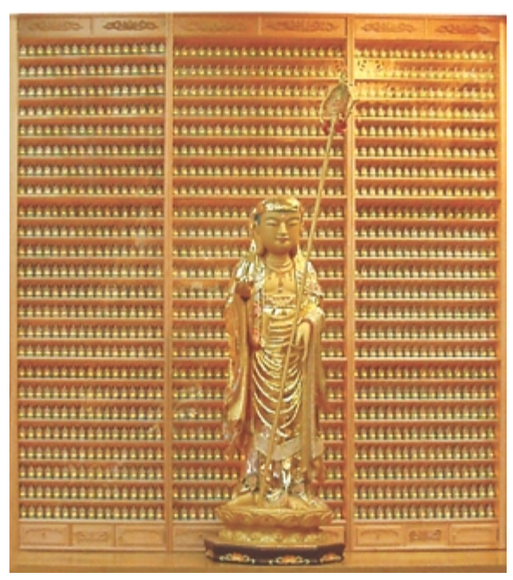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일본의 아마추어 카메라맨과 한국의 프로 카메라맨이 서로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일 '사진과 아트교류' 페스티벌을 연다. 올해로 5회째다. 무료입장 가능하며 4월 3일~4월 5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열린다. (02)765-301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를 연다. '책속으로의 여행', '어린이 책과의 만남', '마음을 여는 책', '도서관에서 놀기' 등 총 12강좌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한다.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과 도서관 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강좌 구성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강좌는 4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부터 12시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에서 무료로 운영하며, 3월 20일부터 홈페이지(www.nlcy.go.kr)를 통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02)3451-0774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는
3월 13일부터 신규 전시 '꼬마세계시민' 등을 리뉴얼해 열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를 위한 상호작용 전시로 개관 12주년 기념전이다. '꼬마세계시민'은 다양성과 평화를 주제로 사회적 요구와 교육계의 동향을 반영해 총 12점의 전시에 22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돼 있다. (02)2143-3600 / www.samsungkids.org

전남 장흥 정남진에서는
'장흥 봄나들이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5월 6까지 계속되는 행사에서는 '당신도 예술가', 영화 '천년 학' 시사회, 가무악 전국제전, 키조개 축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061)860-0223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유토피아-이탈리아 판화 400년전'이 4월 25일까지 열린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www.uac.or.kr)에서는 르네상스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장된 오리지널 판화 100여점을 소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031)828-584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가축 배설물이 연료?…몽골 탐험 가볼까!"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몽골대탐험' 전



몽골의 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몽골대탐험전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몽골 전통복장.



탁본 체험



게르공작소



화석발굴체험

"셈 베이 노!"

무슨 말이지? 그나마 친숙한 영어도 일본어도, 독일어도 아니다. 이 낯선 말의 정체는 몽골어 '안녕하세요'다.

갑작스레 몽골 인사말을 건네 놀라웠다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는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 '과학관과 몽골어가 무슨 상관?'이길래.

우선 몽골에 대해 아는 것들을 꺼내보자. 고비사막, 울란바토르, 라마교, 유목민, 게르, 칭기즈칸…. 이쯤 되면 말문이 막힌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며 우리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이 사는 땅 몽골. '이웃'이라 할 만큼 가깝지도 않은,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을 떠올리며 신화적 상상력만 발휘하기 일쑤인 이 나라를 더 알고 싶다면 주목해보자.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몽골대탐험전'을 말이다.

'탐험'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 몽골대탐험전은 전시장부터 심상찮다. 7개의 탐험장 모두 몽골 유목민의 전통 가옥 형태인 '게르'다. 탐험장 안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탐험 준비. 몽골 사막에 사는 쥐와 여우 중 하나를 택해 동물 머리띠를 만들어 착용하면 된다.

"엄마, 표범 좀 봐, 표범!!"

도움말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처음 들어서게 되는 곳은 자연탐험장이다. 이곳에는 사막·초원·산악지대로 각각 나눈 공간에 포유류 박제와 조류 및 화석, 식물 표본 등이 약 600여점 정도 빼곡하게 전시돼 있다. 아이들은 주로 동물박제에 호기심을 보인다. 특히 몽골 산악지방에 살며 추위에 견디기 위해 두툼한 발을 가진 눈표범에 시선이 몰린다. 어떤 아이는 "살아서 만났다면 더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워하기도 한다.

이제 다음 체험관은 생활탐험장이다. 아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고 있는 몽골인 특유의 정서가 느껴지는 체험관이다. 현재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인구가 몰려있다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초원지대 유목민들은 아직 옛 조상의 원형을 지키고 살고 있다.

항상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들답게 게르는 못 하나 없이 뼈대와 가죽으로만 설치, 해체되는 집이다. 그 안에도 최소한의 도구들만 갖춰져 있다.

하지만 라마불교를 믿는 몽골인들이기에 간소하게나마 게르 북쪽에다 불단을 모셔두는 것은 잊지 않는다. 모진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던 공간인 셈이다.

"몽골 사람들은 연료로 뭘 썼을까요? 여긴 나무가 참 귀해서 가축의 배설물을 딱딱하게 굳혀 연료로 썼다고 해요."

배설물을 주워 담는 기구 아락(담는 통)과 사바르(갈퀴처럼 생긴 도구)를 보며 아이들은 한바탕 까르르 웃는다.

몽골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세계 최대 화석발굴지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몽골체험전에서도 발굴체험은 필수다. 전시 기획팀에서 미리 모래 속에다 프로토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등의 공룡 뼈와 발자국 화석을 숨겨뒀다. 각자 나눠준 삽과 도구를 이용해 모래로 덮여있는 곳에서 화석들을 파낸다.

조류·화석·식물 표본 등 600여점 빼곡히
부모와 함께하는 화석 체험·게르 제작 등 인기
"유목문화 이해 좋은 기회"…6월 17일까지

"아빠, 이건 살타사우루스지?" "여기가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스테고사우루스 같아." 영민이(대전 유성초등 2)는 지금까지 만화나 과학서적을 통해 쌓아온 공룡지식을 쏟아 놓는다. 잘 아는 만큼 더 신나는 표정이다.

"여러분들처럼 발굴 잘 한 사람들 처음 봤어요!"

"에이, 아저씨는 맨날 여기 보면서 뭘 그래요~!"

직원 아저씨의 너스레에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한바탕 웃음이다.

이어지는 곳들은 작업공작소다. 공작소1은 미니어처 게르를 직접 지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자연탐험장에서 봤던 몽골 나비를 만들어 코팅, 기념품으로 챙겨갈 수 있는 공작소2에서는 '어서오세요'라는 뜻의 "땁떼모르떼오!"가 고문자로 판각된 나무틀도 탁본해볼 수 있다. 암모나이트, 메머드 등이 어떻게 화석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공작소3에서 화석모형을 만들어 보면 궁금증 해결!

준비된 몽골탐험은 여기까지다. 사실 '대탐험'이라고 할 만큼 시설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이 전시를 기획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이시완 전시관리소장은 "몽골의 생태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전시의 의도"라고 설명한다.

"몽골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인들이 게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느껴주시고요, 공룡 화석을 보면서 고고학에 대한 조그만 관심부터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몽골의 야생동물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42)825-6480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통도사 구하문도회 소집공고

◆일 시 : 불기 2551년 3월 30일 오후 2시

◆장 소 :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

◆안 건 : 통도사 주지 추천의 건

지난 2007년 3월 6일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차기 통도사 주지를 구하문도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산중결의에 따라 구하문도회에서 통도사 주지를 추천하고자 문도회를 개최하오니, 종무가 다망하시더라도 문도회 회원스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년 3월 23일

구하문도회 문장 초우

벚꽃이 아름다운 절, 가족과 함께 하는 절

합천 청강사 벚꽃 산사 음악회

합천 허굴산 자락의 청정도량 청강사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즈음에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준비합니다. 일상을 벗어난 고즈넉한 산사에서 음악의 선율과 함께 벚꽃의 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청강사 주지 혜 광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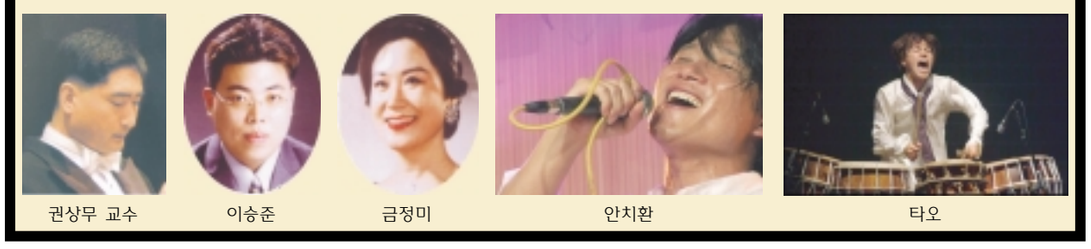
◆일 시 : 2007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장 소 : 청강사 경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산 67 ☎ 055)932-5706)

◆후 원 : 대병면 유관기관 및 단체·한국수자원공사·합천댐 관리단·KT합천지점

◆출연진 : • 피 아 노 연주 – 권상무 교수 • 대금 – 이승준
• 메조소프라노 – 금정미 • 가수 안치환
• 신명퍼포먼스 – 타오

※ 저녁산사는 기온이 낮습니다. 따뜻한 복장 준비 하세요!



권상무 교수 이승준 금정미 안치환 타오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어느 시인의 "시장바닥에 허드레 눈이 시장사람들처럼 내린다"고 표현한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내남없이 내리는 눈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 시인은 눈을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고 삶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저어하면 안 돼요. 봄이잖아요. 함초롬하게 핀 봄꽃들이 긴 겨울을 견너온 우리에 대한 위로일까요. 언어에는 생명이 있지요. 언어는 우리의 정신을 표현해주는 것이죠.

깜냥: 일을 가늠 보아 해 낼만한 능력.

내남없이: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열대야에는 내남없이 잠을 못 이룬다.

저어하다: 두려워하다.
집착을 저어하여 아예 사랑을 만날 기회조차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함초롬하다: 가지런하고 곱다.

허드레: 함부로 쓸 수 있는 허름한 것.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남녀의 애정과 농촌 계몽 의지 담아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심훈作 '상록수'

농촌 계몽 소설의 대표적인 장편입니다. 수탈당하고 황폐화된 농촌인 한곡리와 청석골을 배경으로 하지요. 계몽주의와 민족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진 이 소설의 주제는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남녀의 순결한 애정과 농촌 계몽을 위한 헌신적 의지입니다.

<상록수>에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지요. 1930년대 조선은 일본이 제국주의의 야욕을 맘껏 드러낸 때여서 온갖 시달림을 받고 있었지요. 백성들은 신음했으며 농촌은 특히나 가난에 찌들었던 때였지요. 가난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듯 간도로 떠난 농민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을 펼쳤는데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 말이죠. 19세기 말 러시아 지식인들이 농민 속으로 들어가 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나타낸 말이죠.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도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농민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죠. 이광수의 <흙>이나 심훈의 <상록수>에는 이런 생각들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그 배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작가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농촌과 문맹을 깨우쳐 보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스토아 부인의 '엉클 톰의 오두막집'을 읽은 링컨이 노예해방 운동을 하듯 글의 힘은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하잖아요. 작가는 마지막 장의 제목을 '최후의 일인'이라고 하였어요. 작가는 영신이 일본에서 학업도중 병이 걸려 돌아 온 것을 통해 영신이 죽은 것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며 영신과 동혁이 하고 있는 일은 사

'브나로드' 운동 작품에 반영
마지막장 '최후의 일인'은
민족 살릴 사람 상징한 제목

실 일본이 억압하고 있는 일, 즉 창씨개명, 우리말 사용금지에 대한 정면 도전인 셈이겠지요. 영신이 비록 죽었다고는 하지만 최후의 일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살아 있음을 알게 한 것이죠. 누군가 싸우다가 죽어도 우리 민족을 살릴 사람은 언제나 남아서 상록수 그늘을 걷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제목으로 읽혀져요.

신문사에서 주최한 학생 계몽 운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모인 자리.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중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계몽 대원의 사명이다."라고 외치는 박동혁은 그 자리에서 여학생 채영신을 만난다. 자연스럽게 몇 번을 만나며 이 두 사람은 농촌에 뛰어들어 농민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동혁은 한곡리에서, 영신은 청석골에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회관을 짓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가운데 둘의 사랑은 깊어간다.

사치를 일삼으면서도 몇 푼의 기부금에 달달 떠는 부자들 사이에서 수모를 겪고 주재소 신세까지 져 가며 영신은 혼신을 다해 청석골 회관 짓는 일에 매달리다 결국 회관을 다 지어 건립 식을 앞두고는 맹장염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된다. 영신을 간호하다가 퇴원할 때쯤 해서 한곡리로 돌아간 동혁도 시련을 겪는다. 동혁이 없는 동안 기천이란 인물이 한곡리 청년회 회장이 된 것이다. 동혁은 동생 동화가 회관에 불을 지르려다가 들키는 바람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다.

한편 공부를 해 보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영신은, 청석골에 대한 그리움과 동혁에 대한 걱정으로 몸이 더 상해 버렸다. 끝내 청석골로 가서 죽는 순간까지 일하겠다고 돌아온 영신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일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동혁을 만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1934년, [동아일보]발간 15주년 기념 현상 모집에 당선되어 1935년부터 연재된 '상록수'는 영화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서산 보원사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조종민

3월 18일 서산 보원사지에 다녀왔습니다. 서산 마애삼존불로 유명한 곳이지요.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지 스님과 녹색연합시민연대의 개발 저지 노력은 한전이나 도로공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보원사지에 갔다 와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방송국들은 우리의 강탈당한 문화재를 외국에서 환수 받아야 하고 몇 천 년 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소리 높여 얘기 하지만 정부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해 문화재를 소홀히 관리 하거나 무방비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재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여러 가지 보물들과 훌륭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들을 눈앞에 이익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차츰 차츰 사라져가게 내버려 둔다면 언젠간 미래에 후손들은 우리가 몇 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서 왔는가 하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말과 글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거나 느끼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겐 더욱 큰 역사 공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원사지에 다녀오실 것을 강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앞에 나가 스님들이나 시민연대마냥 투쟁하지는 못하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호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짬짬이 시간 내어서 여러 사이트에 보원사지가 처한 상황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누구 한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문화재의 주인은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불자의 입장에서 성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서울 옥천암 청년회)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스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시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
국내 초역인 "밀전참선요법"과 "밀전불법통지"수록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음은 물론 고암 스님이 쓰시던 발우와 주장자, 금란가사를 물려받으신 오등선원의 조실 한암대원 스님.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황금의 여러 법맥 중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암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눈짓해 보인 소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으로 짓쳐들어가는 일이며,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에 거하는 묘한 도리를 깨우치는 일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02)2004-8219, Fax:02)737-0696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행 또는 무애행…"양심이 곧 부처"

(奇行) (無碍行)

삼성 스님의 처절한 수행기록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입적 2주기 맞아 출간

단하소불(丹霞燒佛) 탄하파불(呑河破佛)

1200년 전 중국의 단하천연 선사는 하남성 혜림사에서 목불을 태웠다. 추운 겨울, 좌선을 하다가 도끼로 목불을 쪼개 군불을 지핀 것인데 그 절의 원주가 무슨 짓이냐고 꾸짖자 아궁이를 뒤적거렸다. 그건 또 뭐하는 짓이냐는 말에 "사리를 찾는다"고 답한다. 단하천연 선사가 목불을 태운 것, 단지 주위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을까? 부처님을 신격화 하고 좌선제일주의에 빠져 형식화된 수행을 반성하지 않는 승단에 대한 뜨거운 경책이었다.

이 사건은 <경덕전등록>과 <오등회원> 등에 실려 선가에 전해지며 활발한 선수행자의 격외행 무애행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단하천연 선사가 오늘날 다시 살아온다면? 1200년이 지난 아직도 '소불'의 경책을 청중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인용문으로만 쓸 뿐 살아 있는 수행은 하지 않는다고 통곡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단하천연 선사의 후신(後身)이 우리 곁에 있었다. 2년 전(2005년 3월)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에서 수행하다가 입적한 탄하삼성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삼성 스님은 2003년 법주사에서 종단의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팔상전의 토불 6구를 깨부쉈다.

걸림이 없었다. 이미 '양심이 곧 부처'라는 견처를 확인하고 여러 해 동안 용맹전진을 하며 수행의 길을 걸었기에 어떤 장애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파격의 행동을 서슴지 않은 덕분에 승단 안팎에서는 '괴각승'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이날의 파불도 그런 맥락이었다. 종단이 지나치게 권력화 정치화 되는 현실, 외형불사와 왜곡된 신행 조장이 극심해 지는 현실, 종단 지도부의 도덕성 부재 등을 개탄하는 행동법문이었다. 특히 삼성스님은 자신의 승적이 분한신고 미필을 사유로 박탈되어 복적 되지 않은 마당에 멸빈자는 구제하겠다는 정치놀음에서 승단의 미래를 볼 수 없어 파불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다.

과연, 파불은 적절한 선택이었을까? 부질없는 질문이다. 이미 6구의 불상은 깨졌고 삼성스님은 벌금형을 치렀고 종단은 별로 변한 것이 없으니….

위법망구(爲法忘軀), 전과 7범의 사연

삼성 스님은 팔상전 석불의 파괴로 벌금형을 받아 생애에서 마지막 전과를 기록한다. 일곱 번째다. 절에서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지낸 것을 참회 받기 위해 대중 앞에서 도끼를 들어 보이며 "참회 하지 않으면 내 팔뚝을 잘라 부처님께 바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첫 전과다. 눈앞에서 넘어지는 여자 신도를 부축하는데 그 장면을 사진 찍어 강간 미수로 고발한 신도 덕분에 전과 2범이 됐다. 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병이 깨져 같은 모양의 사리병을 만들어 위조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권력자들 앞에서 과도를 놓고 "진실을 말하라"고 윽박질러 "사리병은 가짜"란 고백을 받았으나 1년 뒤 협박 폭행죄로 전과 추가. 종헌종법의 병폐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분신을 기도하다가 전과 4범, 토굴에서 땔나무를 하다가 두 번의 벌금형을 받아 전과 6범이 됐고 팔상전 파불 사건까지 도합 전과 7범이 된 삼성 스님. 일곱 개의 별은 2500년전 부처님의 '새벽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자암 무문관에서 수행하다가 2005년 입적한 삼성 스님.

무문관의 기록, 천하가 무문관인 것을

삼성 스님은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다가 입적했다. 수행자가 수행하던 좌복 위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행복한 입적이다. 그러나 쓸쓸했다. 무소유를 철저히 지켜 온 생애처럼 삶의 흔적을 거두는 일도 아주 간결했다. 다만 수행 틈틈이 기록한 글이 남아 있어 이 승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삼성 스님은 무문관에서의 '정진 일기'를 착실히 기록했다. 날씨와 맥박, 몸무게, 운동량 등을 기본 정보로 삼았고 그날그날의 마음자리도 진솔하게 기록했다. 자신을 응시하는 예리한 눈빛이 묻어나는 기록이 두 권의 노트에 빼곡하게 남아있다. 파불 사건 이후 무문관을 선택한 것은 죽음을 예감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를 무문관 삼아 살기엔 인연이 각박했기에.

무문관의 정진 일기 못지않게 100일간의 만행을 기록한 만행일기도 읽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법주사에서 임진각까지 8일간 도보로 행진한 이야기, 속리산 상환암에서의 뼈를 깎는 정진과 색욕과의 치열한 싸움,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한 사연 등등 삼성 스님의 생애는 감동 이상의 감동이다.

단식참회와 진리의 증오

삼성 스님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하고 얼른 주머니에 넣는다. 넣고 보니 병뚜껑이었다. 번개가 일고 벼락이 떨어지는 느낌! 스님은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는 물욕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기한 없이 단식참회를 했다. 53일만에 심근경색증과 하체 마비를 얻어 불구가 됐으나 다시 기도와 참회 정진으로 병마를 극복했다. 모두 150일의 단식참회와 150만 배의 정진이었다.

"마음이 부처라 함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증오하였도다. 양심이 성스러운 불성임을 증오하였도다. 욕심을 타파하고 무너짐 없는 계율정신이 바로 부처임을 증오하였도다."

2002년 3·1절 날, 삼성 스님이 견처를 확인하고 부른 노래다.

삼성 스님의 생애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것은 25년간 스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최만희 시인의 공덕이다. 그는 불교청년회 활동을 하며 스님과 인연을 맺어 스님이 직접 기록한 각종 일기들을 전해 받았다. 삼성 스님의 입적 2주기를 맞아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운주사 1만원)를 펴낸 최 시인은 "이 한권의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심전심하여 양심의 빛이 방광하길 바란다"며 "양심이란 두 글자가 쓰인 삼성 스님의 부도를 세우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소'를 찾기까지는 외로워도 '길'을 가라



심우도
설산 스님 지음
연인 M&B | 1만원

'심우도(尋牛圖)'는 선(禪)의 열 가지 수행 단계를 그림과 시로 나타낸 것이다. 소가 등장한다고 해서 목우도(牧牛圖)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심우도'는 구도적 수필이나 소설의 주제로 많이 등장한다.

서울 백련사 주지 설산 스님도 이번에 '심우도'란 제목의 구도소설을 썼다. 이 책은 제목에서 이미 복선을 깔아 놓았듯이 주인공 원각스님이 수행 정진을 통해 인생에 대한 물음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의 과정을 심우도에 비유했다.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원각 스님의 메시지는 진한 여운을 준다.

"어떤 순간이 닥쳐도 수행정진에 매진하리라. 수행이란 외로운 것이지만 외로움을 뛰어넘은 수행이 정말 참수행이 아닌가?" 책장을 덮고 나면 무엇인가 얻어맞은 듯한 감동과 발심이 솟구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중국불교의 뿌리와 독창성찾기



중국불교철학
팡리티엔 지음
김봉회 · 이봉순 · 황성규 번역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1만3000원

이 책은 저자가 10년의 각고 끝에 펴낸 중국 출판문화상 수상작인 <중국불교철학요의> 5편중 1·2편을 번역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중국인의 관점에서 중국불교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불교의 뛰어난 인물과 중국불교학자들이 제시한 불교경전의 풍부한 철학성, 사상적인 개념과 관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총론인 제 1편에서는 인도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후 중국의 고유철학인 유교 및 도교와 접목돼 중국불교철학이 형성된 과정과 변천사를 설명하고 있다. 제 2편은 인간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 자못 흥미롭다. 인간 삶의 법칙인 인과응보론을 먼저 소개한 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중국불교철학이 인도불교철학의 주제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전통적 사상인 유교, 도교와의 사상적인 교섭을 통해 독창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인간과 자연의 미래 '느림'으로 심는다



미래를 심는사람
피에르라비 · 니콜라 윌로 지음
배영란 옮김
조화로운 삶
1만3000원

이 책은 알제리 출신 프랑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와 녹색 운동가 니콜라 윌로가 인간과 자연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피에르 라비는 자급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 친환경 유기 농법을 연구하고 이를 유럽과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프랑스 방송인 니콜라 윌로 역시 1990년 '니콜라윌로재단'을 설립해 환경교육을 강조하며 활발한 녹색운동을 펼치고 있다.

직업은 다르지만 환경운동을 공통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들은 벌목이나 화재로 거대한 면적의 열대우림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산에 나무가 줄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온실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다.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업이 지속되면 토양과 지하수층의 오염으로 인간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니콜라 윌로는 진보의 개념을 생태학적 차원에서 나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생태학에서는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회적 진보로 인한 결과물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을 때, 이는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에르 라비는 느리게 사는 것이 환경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즐기는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빠르게 살기 위해 만든 컴퓨터나 자동차, 비행기 등을 이용해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우리가 떠나보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2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3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6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사
7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도솔
8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9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각
10	오체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전국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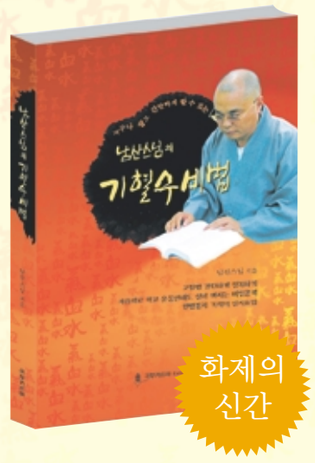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법회가 4월 1일 열립니다.
◆서울선원 ☎ 02-522-0122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 / 4월 15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부산선원 ☎ 051)545-2460
반야심경 / 4월 22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45%할인된 5만원에 드립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비법 공개
관절염을 가정에서 쉽게 해결하는 비법 공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남산스님 약력
• 경북 칠곡군 기사면 출생
• 한사대(현 대구대)특수교육센터 졸업
•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과 졸업
• 중국 남경 중의대학 기공학 석사과정 수료
• 중국 요녕성 중의약 대학교 비만학과 교수
• 녹색 대학교 석좌 교수
• 한국대체의학 연구소 소장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화제의 신간
국부카르마 문 의 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봉

(사)한국미륵불교 제2대 종정 법련 덕범스님 총무원장 화륜 송봉스님 취임

축

종 정 법련 덕범 대종사

승정원부원장 **자인 원봉**
중앙종회의장 **명오 만오**
중앙선원장 **청강** 중앙호법원장 **신수** 중앙문화원장 **법륜** 중앙국제문화원장 **도성**
중앙포교원장 **대력** 중앙교육원장 **영봉** 중앙감사원장 **상천**

총무원장 **화륜 송봉** 사무총장 **남송** 총무부장 **금봉** 교무부장 **대비**
사회부장 **문수** 규정부장 **법타** 포교부장 **향봉** 재무부장 **원각심**
여성포교사회장 **보하**

직할종무원장 **대력** 마산종무원장 **대봉** 창원종무원장 **대비** 부산강서종무원장 **청련**
대구종무원장 **금강** 구미종무원장 **규봉** 대전종무원장 **보은** 서울경기종무원장 **홍각**

이사장 **신용태(법련)** 부이사장 **김명오(만오)**
이 사 **강경우(송봉) 신대기(남송) 강이석(대비) 김판개(대력) 이성호(금봉)**
감 사 **신성기. 김봉식**

(사)한국미륵불교 제4차 정기총회(2007년3월1일)에서 위와같이 선임하였음을 공고함.

(사)한국미륵불교 • 총본산 무량산 대무량사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하리 578번지 ☎ 055)672-4591.2

제2대 종정 법련 덕범스님 / 총무원장 화륜 송봉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한국미륵불교 중앙선원
미 륵 암
선원장 **청강** 합장

(사)한국미륵불교 여성포교사
해 암 사
포교회장 **보화** 합장
경남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심리 599번지
해 월 암
포교부회장 **청정** 합장
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1동 19-14번지

(사)한국미륵불교 중앙문화원
충 효 사
문화원장 **법륜** 합장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107-8번지

(사)한국미륵불교
소 림 정 사
도현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71-1번지

(사)한국미륵불교 중앙포교원
해 암 사
포교원장 **대력** 합장
경남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심리 599번지

(사)한국미륵불교 창원 종무원
선 녀 암
종무원장 **대비** 합장
경남 마산시 합포구 교방동 499-34번지

(사)한국미륵불교 대전 종무원
약 수 암
종무원장 **보은** 합장
대전시 중구 사정동 산 9번지

(사)한국미륵불교 대구 종무원
금 강 사
종무원장 **금강** 합장
대구시 동구 신암2동 821-1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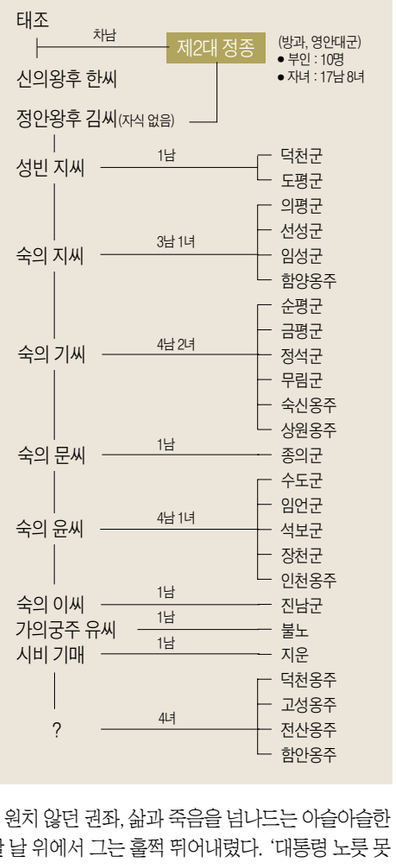
권좌에서 뛰어내려 마음 비우니 천수 누리네



제2대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

2대 정종 <1357~1419, 63세. 재위기간 2년 2개월, 1398.9(42세)~1400.11(44세)>

제2대 정종 가계도



원치 않던 권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칼 날 위에서 그는 훌쩍 뛰어내렸다.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 여론을 슬쩍 떠보니, '전하, 고정하시오소서!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하시오니까. 신들의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오니이다.' 입에 발린 간언을 주유소에서 받은 1회용 휴지처럼 내쳤다.

조선 역대 왕 중 매력 없는 왕의 순위를 매기라면, 정종은 둘째가라면 서럽다. 어딜 둘러보아도 야심, 패기, 술수,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다. 2대 정종이란 묘호가 아깝다. 그래서 묘호를 얻는데 262년이 걸렸다. 40대 초반에 2년2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63세에 죽었다. 죽은 후 오랫동안 묘호도 없이 공정왕으로 불리다가 1681년(숙종7년)에 정종이란 묘호를 받았다. 정종은 방원이 왕권을 접수하기 위해 잠시 머문 부교(浮橋)였다.

왕위를 물려 줄 다음 타자는 당연히 방원이다. 정종에 의해 1400년 2월에 방원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세제가 아닌 세자가 된 이유는 정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당시 조정 분위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론 방원이 정종의 왕위를 이었지만 실제론 태조의 세자로 왕위를 이었다는 것이다.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지 엉겁결에 들어선 잔칫집에서 받아든 밥상이 아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동생에게 왕위를 내 주었으니 기분 참 더러웠을 것이라고? 아버지 이성계의 역성혁명, 왕자의 난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그는 피비린내의 근원, 권력의 속성을 알고 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보상이 없다. 목숨을 걸어도 금메달은 한 개 뿐이다.

그 역시 무장(武將)이다. 청년 시절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했고 1390년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밀직부사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성품이 근실하고 지행이 방정했다. 음모와 야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또 한 번 일어날 뻔한 살육전을 피할 수 있었다. 자리를 탐하는 측근도 두지 않았다.

1차 왕자의 난이 성공을 거두고 세자 책봉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는 이미 판세를 읽었다. 그래서 진중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당초부터 대의를 주장하고 개국하여 오늘에 이른 업적은 모두 정안군(방원)의 공로인데 내가 어찌 세자가 될 수 있겠는가?"

방원은 흐느끼며 간청한다.

"큰 형님(방우)이 돌아가시고 없는 마당에 형님이 장자십니다. 형님이 마땅히 대통을 이어야합니다. 엎드려 비오니 내치지 마십시오."

방원의 속내를 어찌 모르랴. 그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화병으로 쓰러질지도 모를 아버지를 위해 내가 잠시 방원의 다리가 되자. 내 등을 밟고 옥좌로 가거라. 실권은 이미 네게 있으니, 나는 잠시 세탁소에서 빌린 용포를 입고 사진 몇 장 찍고 물러나리라.

스스로 다짐한 그 각오를 지켰다. 세력을 모으는 낌새가 있으면 야밤중에라도 방원의 수하들이 칼을 들고 침전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내관들마저 방원 측 인물들이다. 정비 정안왕후 김씨 사이에는 후사가 없었다. 이것도 그들이 천수를 누린 이유다.

2년 2개월의 짧은 권한 대행을 마치고 정종은 상왕이 된다. 편하고 자유로운 상왕 노릇을 19년간 했다. 동네 목욕탕에도 맘대로 못가고 골프 한 번 치러 나갔다가는 기자들이 두더지처럼 따라붙어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전직 대통령들은 정종이 한없이 부러울 것이다.

3대 임금으로 즉위한 방원은 정종을 상왕으로 삼고 예우를 극진히 했다. 1400년 12월 상왕전에 나아가 '인문공예상왕'이란 존호를 올리고 이르기를,

"태조에 이어 정사에 나아가 나라를 평안케 하셨고 소자를 보전케 하셨으며 인애를 다하여 즉위토록 명하셨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도를 즐기시고 한가로이 지내시면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옵소서. 충심에서 우러난 소원이오니 굽어 살피시고 다복한 상서를 받으소서."

이것은 방원의 진심이었다. 권력을 얻은 자의 아량과 시혜였다. 정종은 그 뜻을 담담하게, 흔쾌히 받아 실행했다. IOC 위원, 왕권 홍보대사란 직책이 있었다면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 상왕은 격구, 사냥, 온천 여행, 파티의 고수였다.

정종보다 7년 먼저 죽은 정안왕후 김씨는 사려 깊고 공손한 성품의 여인이었다. 덕행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애로써 친족과 친교를 두텁게 했다. 집안이 한미한 것도 아니다. 고려 공민왕 때 문하좌시중(부총리) 월성부원군 김천서의 딸이다. 김씨는 정종의 즉위 때부터 조심스럽게 반대했다.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옵니다. 바람 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는데 돛단배가 어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정종은 부인을 달랬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방원의 뜻이 하늘의 뜻보다 강하니 어쩌겠소."

왕위에 앉은 2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니라 뛰어 내릴 궁리만 했다. 권력을 위해서 세계적 수치를 안으로 삭힌 미시스 클린턴 힐러리님과 대비된다. 그들은 천수를 누렸다. 정종 63세, 김씨 58세에 죽었다.

정종은, 무능하고 겁 많은 소인배인가, 시대의 코드를 읽은 대장부인가? 함량미달인 인사들도 주변에서 바람을 잡는다고 대권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다. 출마가 직업인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경우는 못 봤다. 참가에 의미를 두는 것은 스포츠다. 마라톤 완주에는 격려를 보내지만 깜냥 모르고 '못 먹어도 고'라고 설치는 정객은 공공의 적, 가문의 원수다.


정종은 풍류객이었다. 노년을 사냥 , 격구, 온천여행으로 보냈다. 사진은 마상무예팀의 사냥시범(현대).

권력의 속성 알고 있는 정종, 자리 탐하는 측근 두지 않아 왕위 짧았지만 19년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왕 생활 누려

이것은 방원의 진심이었다. 권력을 얻은 자의 아량과 시혜였다. 정종은 그 뜻을 담담하게, 흔쾌히 받아 실행했다. IOC 위원, 왕권 홍보대사란 직책이 있었다면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 상왕은 격구, 사냥, 온천 여행, 파티의 고수였다.

정종보다 7년 먼저 죽은 정안왕후 김씨는 사려 깊고 공손한 성품의 여인이었다. 덕행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애로써 친족과 친교를 두텁게 했다. 집안이 한미한 것도 아니다. 고려 공민왕 때 문하좌시중(부총리) 월성부원군 김천서의 딸이다. 김씨는 정종의 즉위 때부터 조심스럽게 반대했다.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옵니다. 바람 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는데 돛단배가 어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정종은 부인을 달랬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방원의 뜻이 하늘의 뜻보다 강하니 어쩌겠소."

왕위에 앉은 2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니라 뛰어 내릴 궁리만 했다. 권력을 위해서 세계적 수치를 안으로 삭힌 미시스 클린턴 힐러리님과 대비된다. 그들은 천수를 누렸다. 정종 63세, 김씨 58세에 죽었다.

정종은, 무능하고 겁 많은 소인배인가, 시대의 코드를 읽은 대장부인가? 함량미달인 인사들도 주변에서 바람을 잡는다고 대권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다. 출마가 직업인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경우는 못 봤다. 참가에 의미를 두는 것은 스포츠다. 마라톤 완주에는 격려를 보내지만 깜냥 모르고 '못 먹어도 고'라고 설치는 정객은 공공의 적, 가문의 원수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후릉 근경. 고려공민왕 능을 닮았으나 상태가 좋지않다.


능의 제2단에 문인석(맨 왼쪽)을, 제3단에 무인석을 배치.

후릉은…

후릉 가는 길은 지금 없다. 북녘땅 개성시 판문군 령정리에 있다. 죽어서도 왕따다. 후릉은 당대 명건축가 박자청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태종의 헌릉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헌릉을 보면 북녘에 있는 후릉을 본 셈이 된다. 두 쌍의 문인석, 무인석의 모습도 헌릉과 다르지 않다. 병풍석을 둘렀으며 면석에 12지상을 새겼고 왕과 왕비의 능 앞에 각각의 장명등을 세운 것, 홍유석 받침돌(고석)이 5개인 조선 초기 양식이며 이는 고려 왕릉의 형식을 답습한 것이다.

六壬
特別講座 受講生 募集
基礎부터 實戰 專門家 水準까지!!!
人事, 處世術을 通察케하는 明快한 講義!!
입 학 안 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 모집인원 : 00명
◆ 수 강 료 : 30만원
◆ 교육기간 : 12주(3개월)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六壬 理論 오전 10시 ~ 오후 1시
※ 명리 · 대체의학 특강 수시
◆ 교육장소 : 라이프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 개 강 일 : 2007년 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접수문의
라이프평생교육원 교학과 02)766-1321~2
♤ 담당교수 : 육임입문저자 직강 / 이우산 019-514-5557
명리특강 / 철학박사 이춘목 011-1763-3567
◆ 특 전
♤ 수료생 전원 동방철학연구학회 정회원 가입 및 동문회 결성
♤ 자격 심사 후 학회 명의 자격증 취득 가능
♤ 미국 LU 대학교 교육과정 인증 및 한의학 · 대체의학 유학 가능
♤ 수료 후 창업컨설팅 상담 지원
한미교육교류재단
라이프평생교육원
Life Institute For Continuing Education
www.lifeschool.co.kr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탈종공고
● 사찰명 : 보원정사
● 법 명 : 보원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215-2
상기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역학속성 개인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건강뜸
기초에서 완성까지
1개월 수료후 문서기증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비법전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강의 및 법문
문의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사

역학 수강생 모집
명리,성명,자미두수,택일,
풍수,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3개월, 6개월 완성. 불광사
032)508-0381
019-9007-974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절충)
50~60대
▷서울구로
010-9478-9607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54)433-6315
010-4520-6787

500나한 기도도량 선지사
1000일 기도스님 모십니다
행자 공양주 모집
055)329-1056
011-488-10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1-845-1910

공양주 보살님
남해 바다 근접한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수행하며
무보시로 지내실 분을
모십니다 (연령 제한 없음)
▷전남 고흥
010-2511-1188

금전보시, 공양보시 부담 드리지 않고 주거 공간만 제공해 주시면 사찰건물과 도량을 깨끗이 청소, 또는 낡은 건물수리 전기 설비 등 차량운전 봉사하며 남은 생을 절에서 살곳을 찾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총무보살,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011-493-1121

대한불교조계종 도심속
조용한 사찰입니다
사찰의 제반업무를
조용히 수행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중앙승가대학생 우대)
010-9250-6889

•명리학, 역학, 전문인 스님 구함
•진솔한 내용으로 억울한 일에
봉사할수 있는 시간
자유로운 차량소지자
불자거사님(60대)
연락바랍니다
010-3348-4242

사찰에서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구합니다
(월 100만원)
매월 2회 쉬는날
보너스는 별도
011-9571-6479

조용한 도량입니다.
공부나 요양,기도
하실분 모십니다
(월 35만원) 청강사
016-9506-5706

공양주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568-441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사 함께하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43)644-4580

55세이상
신심 돈독한
공양주보살님
한분 모십니다
032)772-7029
011-331-2266

서울 도심에 있는
포교원에서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하루 2~3시간 불공출퇴근 가능
※기초교리 배우실
재가불자님도 모십니다
010-5548-1472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칠곡)
054)976-8116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공양주 보살님과 출가하여
불교에 입문할 예비스님을 모십니다
문의전화 033)671-7751~3
Fax 033)671-7752, 011-352-7751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설악산 불탑사 · 종립승가대학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꾸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지도는 승려에 한함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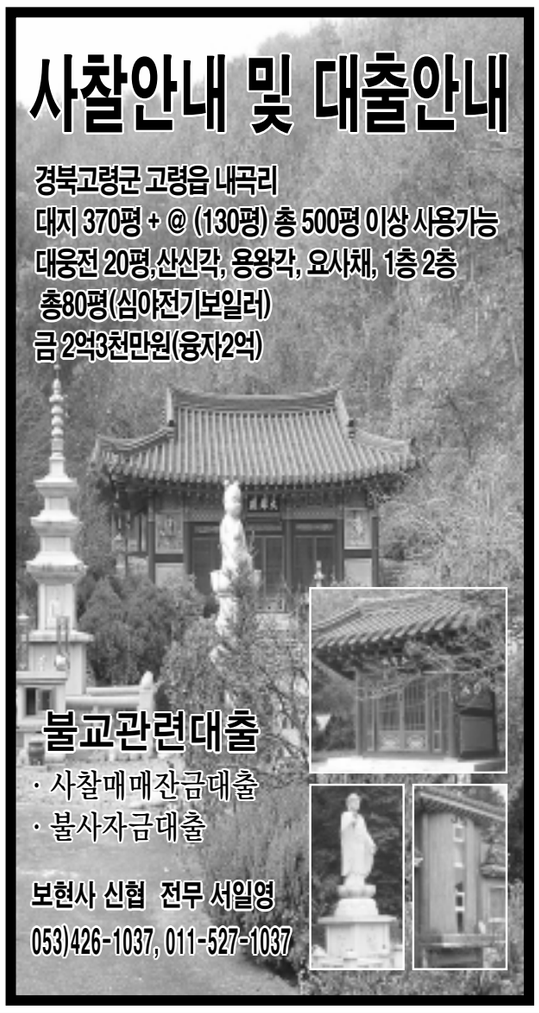
송월스님의 "사주학 핵심비결"강의
철저한 실전위주 통변기법 공개된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 핵심비결저자
(관음출판사)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역학" 전담교수
군산 성흥사(행자전문교육도량)
063)453-0050 www.성흥사송월.com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찰안내 및 대출안내
경북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대지 370평 + @ (130평) 총 500평 이상 사용가능
대웅전 20평,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1층 2층
총80평(심야전기보일러)
금 2억3천만원(융자2억)



불교관련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불사자금대출
보현사 신협 전무 서일영
053)426-1037, 011-527-1037

세계불교 임제종 입종 안내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로 하여 임제종 개조이신 임제 의현선사를 종조로 하고 선교를 수지 선양하는 세계불교 임제종의 종도를 모십니다. 합리적인 종단운영과 종헌 종법으로 중생교화의 지침이 될 세계불교 임제종과 함께하실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무원장 법광 석혜공 합장

입종안내
■ 구비서류 : 사진 5매 (반명함판 4×5),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력서 1통
■ 등 록 시 : 사찰 사암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
신분증 및 법사증 발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총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불교 임제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전화 055)338-4008 / 011-868-2850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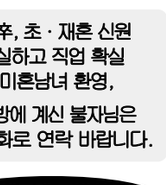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강원 홍천 ● 위치:부산 ● 위치:강원 (동해안 지역)
● 법당:12평 ● 법당,요사:150평 ● 법당:25평(복조)
● 요사:80평 ● 부지:135평 ● 요사:50평(복조)
● 부지:800(타인소유) ● 즉시 법회 가능 ● 부지:270평
● 가액:2억 무속인 사용적합 ● 가액:2억 ● 가액:5억5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대구 남구 대명3동 대구대학앞
● 4층건물에 2층, 42평 시설완벽, 주방, 방1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시설비 집기일체 1천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011-839-3881
010-9720-99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원주시립박물관 옆
● 2층건물 중 2층. 4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258-1147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남덕위산 자락
● 부지 : 1,630평
● 가옥 : 황토기와집 2동
● 특징 : 집뒤에 솔숲과 맑은 개울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 4억 5천
010-9304-2322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김천 ● 위치:서울
● 부지:1000평 ● 부지:만평
● 법당:12평 ● 법당:25평
● 요사:20평 ● 요사:30평
● 가액:1억2천만원 ● 가액: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33-010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 법당, 요사채, 황토방
● 넓은정원,텃밭,각종 유실수
● 국도 2차선 100m 밑 옆 계곡, 산 접
● 보증금 300만원,1년 350만원 총 3700평. 양도도 가능 양도가 : 2억 3천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내
● 대지 500평. 동양최대 삼존불 석탑 봉안
● 가액 : 2억5천만원 (절충가능)
033)766-00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2리
● 대지 70평, 옛 기와집. 임법당. 60년된 고찰
● 교통편리, 동네 가운데 있음
● 가액 : 1억
010-7571-2451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전체평수 4390평
● 대지:종교시설부지2000평 허가진행중, 사찰건립계획도 있음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화장실 10평 겸에 주택계획도 있음
● 현재토목설계 1차 500평 허가 득, 2007년 3월 2차 500평 허가예정(현재진행중)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주목군락형성
● 주택1동, 창고1동, 촌집(산입구 오른쪽에 있음) 전원주택(텃밭가능) 목조기와,주거가능 -별도거래 대지 약100평, 건평 약15평, 창고 약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 지하수(청정1급수) 청정한 수행자분이 부처님 전에 기도 후 점지된 땅 ● 가액 : 3억 조정가능
011-741-3415, 010-6283-9792

사찰안내
● 위치 : 여천군 여천읍 군청 뒷편
● 20년된 사찰, 법당1채, 요사채3칸
●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 법당하나에 각각 조성되어 있음
● 가액 : 2억
010-7571-2451

대찰 최적가람지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장천면
● 임야: 3만 8천평
● 대구에서 30분거리 구미 시내에서 20분거리
● 부처님께 보시하는 심정으로 이 산을 내놓습니다
011-501-19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불광동
● 공찰 주지 취임관계로 10년된포교당 양도함
● 원불 350불 모셔져 있음
● 가액:보증금 시설비 합 4500만원
02)386-9939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 찰 안 내
● 위치:삼랑진역 10분거리
● 종교용지 1540평
● 논 550평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토목공사 완료
● 정남향 좌우청용백호양호
● 매매가 3억원
〈부 지〉
● 위치:부산 일광 바닷가
● 평수:1000평
● 가액:평당75만원
● 달음산 자락
● 1000평 평당35만원
● 정남향 양지바른곳
● 바다전망이 좋은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량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 산 부 동 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교원안내
● 위치: 창원시내 상가건물 4층중 3층
● 평수: 9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포교당안내
● 위치: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방3,주방)
● 평수:2층 34평 (법당, 접견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888-0130

사찰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21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포교원안내
● 위치:인천부평역 10분거리
● 평수:4층건물중 3층(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1500만원(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산신,후불탱화
● 집기일체, 영험도량, 즉시법회가능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0-8676-6921

토굴안내
● 위치: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 부지 405평
● 가액:1억 5천만원
010-4202-3699
041)753-8137

토굴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 주생면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90평 (90평 텃밭사용)
● 방4개,후원,화장실,창고
● 가액 :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0-5631-8439
010-6401-4939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사찰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밀집지역 1층 20평 법당 1개 방2개 살림가능
● 산신탱화 문화재인작품 5×10자 고급 쌍호신 산신님 5자 단청고급 법단 원목9자
● 총 인수가:8백5십만원 보증금: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350만원 역학,철학,보시는분 현재운영중
010-6411-2882(일요일 답사)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12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스님실 30평(방2)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연락처011-820-461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면소재지
● 법당: 목조 25평 요사: 30평
● 특징: 약사여래석불 종교부지300평, 시유지600평
● 양도가: 1억 6천
010-8770-498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42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방5개, 주차시설완비
● 가액:1억 1천 5백만원 (절충가능)
055)973-4943
011-737-0736

사 찰 안 내
● 위치: 남원 지리산 휴양림역
● 평수:2,000평, 대웅전, 산신각, 독성각, 별채, 요사채 50평, 심야전기
● 주위에 오래된(200년)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는 경관수려한 곳
● 가액: 2억 5천만원
011-411-0503
063)625-999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5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송현동 월촌역 부근
● 평수 : 53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완비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정릉
● 부지 : 300여평 법당20평, 요사50평
● 가액 : 2억7천만원
노송이 우거진 경치좋은곳
02)909-0215
010-8501-694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전체 7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35평
● 별장용(명당),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적당한 곳 관상용 양어장 있음
● 가액:2억원
010-8564-0302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삼남면
● 평수 : 60평(3층건물중 2층)
● 법당, 방3, 화장실, 욕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보살 소불, 108불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 집기일체 2천만원
010-6527-03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법당, 약사전, 산신각
● 평수 : 대지114평, 공양간, 요사채, 방 4칸
● 가액 : 1억
017-846-4667

토굴이나 휴양(급)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 대지 96평, 건평 25평, 조립식 주택
● 공기좋고 조용, 전망 좋음, 마을내 맨 위 휴향적합 별장적합
● 가액 : 1,900만원
010-9705-992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암면
● 초정약수터 10분거리
● 부지670평 법당20평, 요사채 35평1동, 20평1동
● 충북문화재 21호 석불 있음 텃밭에 매실수 50부 절앞에 버스 다님 조용한 기도도량
● 가액 : 2억 5천만원
043)836-9149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0평
● 요사채 스라브 15평
● 양도가 : 1억1천만원 (전세도 가능함)
● 주인보살 직접 ● 절충가능
011-9423-67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한림정 부근
● 평수: 724평 주차장 완비, 조경, 절 시설 완벽
● 가액: 4억 5천만원 (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1-553-740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평수: 3층 25평
● 삼존불 봉안, 각 탱화 봉안
● 보증금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즉시 법회 가능(시설일체완비)
018-315-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도심 산사
● 부지 : 약 700평 대웅전 요사 각1동
● 가액:17억 (융자 有)
● 자세한 상담은 전화요망
010-3013-466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 방3개, 큰거실, 현대식 구조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3449-327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노루실
● 대지: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9000만원
055)356-53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양군 백운산 자락
● 평수:대지362평
● 건물:목조 한옥 임법당 포함 20평
● 가액: 7천만원
055)964-0357
010-7100-035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대전에서 20분거리)
● 대지 200평
● 건물:신축법당 20평 (삼존불,108나한 봉안) 요사채 2동(구옥)
● 가액: 1억 4천만원
※ 급한 사정으로 제가 양도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부동산 사절)
011-486-1275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고현 아담하고 조용한 소나무 산속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다용도 가능한 황토밭
● 평수: 829평
● 가액: 2천400만원
011-570-1317

소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1층 방2, 삼존불, 법당집기 일체 주방기기, 가전제품 일체 화장실, 세탁실, 세면장
● 보증금 250만원/월 15만원
● 법당집기, 살림가전 일체 300만원 (철학관으로도 사용가능)
010-7760-70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2000만원
031)405-4181
010-6321-1639

오래된 사찰 국선사(충남 공주)
● 법당 20평, 삼성각 6평, 미륵당 30평
● 요사채 방5, 창고 2, 텃밭 1400평
● 밤나무산 삼정 수확중
● 보증금 1500만원/연 5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
010-4782-4465
(저녁 5시 전화요망)

포교당 인수하실분
(스님 건강상으로 내 놓음)
● 위치:서울역 부근
● 법당 약 20평 3층, 요사채 약 8평 4층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철학을 하신분이면 더 좋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750-5424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근교
● 산밑 아담한 기도처
※최상급 · 비구니 스님 적합
● 대지 50평, 법당 15평, 큰방 2, 작은방 1, 주방겸 방 1
● 주불 아미타불 양대보살, 지장불, 산신각, 집기일체
● 가액 : 6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2)2603-2992
011-340-5963
017-202-87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화순
● 대지: 540평, 건물:임법당 50평 (법당-1, 방-4, 입식-1) 기름, 화목 보일러 겸용
● 청정지 명당터에 자연석 조경으로 산신각, 대웅전, 종각, 자연석탑1, 연못2 조경완성
● 가액:9천7백만원(절충가능) 꼭 사실분만 전화바람
011-640-1494

포교원(암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땀흐르는 비석) 에서 5분거리 국도변에 위치
● 대지:190평 요사채:단층 60평 (적벽돌 슬라브) 법당:20평(아미타삼존불)
● 가액: 1억 9천 7백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1-9877-7913
010-5883-500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기동 (구 반야월역 앞)
● 대지 80평, 법당 8평 (삼존불)
● 건물:스님방, 공양간, 요사채 (촌집 개조 수리 완벽)
●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시설비 1600만원 년 사글세 100만원
053)962-7362
011-506-3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 함열
● 법당 20평, 요사 30평 화장실 1평, 대지 150평
● 가액: 8천5백만원 현대식 적벽
※앞 나무 수령 500년 넘은 도량 현 시세보다 수행하는 스님 드리고 갑니다
011-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천하명당 대 도량터
● 평수:5700평 대지:300평 중 건평150평 대웅전 33평
● 골조공사완료(포크레인1대, 숙식가능한 콘테이너 한동 무상보시)
● 꼭 인수 받을 분만 전화바랍니다
● 가액:상담 후 결정
010-4512-0813

탈종공고

● 사찰명 : 도천사
● 주 지 : 원광 (윤광진)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1리 44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8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헌혈하고 '생명나눔' 실천하세요



헌혈률 선진국 절반, 성분헌혈도 절실
전날 과음 피하고 감기약 복용 말아야
장기이식 대기자 1만여명…서약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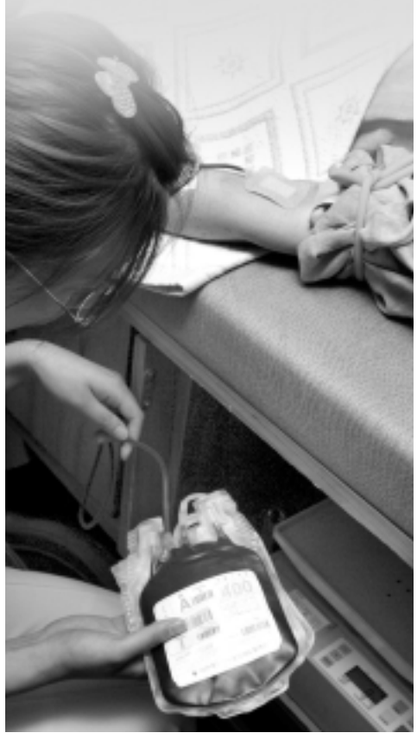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3월 16일 안성 감로당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고귀한 사랑나눔 헌혈운동'을 펼쳤다. 연꽃마을 직원과 봉사자, 후원자, 지역민 등 100여 명이 동참해 헌혈을 하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혈액 수급 비상"

4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34, 서울 구로구)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병원에서 "빈혈이 있어 출산 시 수혈을 해야 하는데, 요즘 혈액이 부족하니 미리 구해놔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혈액을 구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친척이나 이웃에 수소문해봐도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단순히 헌혈증만 기증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혈액을 주겠다는 '지정 헌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성 기근'에 시달리는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달 혈액수급 위기 단계인 '주의'가 발령되는 등 헌혈량 부족으로 응급환자 진료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혈액부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비상채혈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뿐이다. 대한적십자사가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헌혈자수는 지난 2003년 17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47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헌혈률 6.69%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꺼져가는 생명에 새 희망의 불을 지필 수 있는 헌혈. 헌혈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 나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헌혈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16개의 적십자혈액원과 99개 헌혈의 집, 헌혈버스 등을 방문해 참가할 수 있다. 헌혈의 집과 혈액원 위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헌혈을 하기 전날에는 과음 · 과로를 하지 않고 제때 식사를 한다. 헌혈 72시간 전에는 아스피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헌혈 전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록헌혈회원증 등)을 확인하므로 지참한 후 방문한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혈액성분의 전체를 헌혈하는 '전혈(全血)'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혈구나 백혈구 · 혈소판 등 특정 성분만 채집백에 옮겨지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재주입 되는 '성분헌혈'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6~8명의 헌혈 분량에서 혈소판제제를 추출하는 것보다 한 명의 헌혈자가 성분헌혈해서 얻는 혈장의 양이 더 많아,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들에게는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혈장성분헌혈의 경우 30~40분, 혈소판성분헌혈은 60~9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등록헌혈제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헌혈제는 최근 1년 이내 헌혈한 혈액의 검사 결과가 정상인 사람이 회원으로 등록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현재 22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혈액원과 헌혈의 집,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증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등의 단체에 기증하면 형편이 어려운 환우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헌혈증을 모아 기증하는 '헌혈증 지원사업'과, 백혈병 · 재생불량성빈혈 등 다량의 혈소판이 필요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혈소판 공여회원 모집운동'을 펼치고 있다.

적혈구와 백혈구 ·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도 기증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자세한 사전설명을 들은 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혈연간 기증은 20~55세의 건강한 사람으로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이면 가능하다. 우선 기증희망자의 혈액을 분석해 조직적합성형을 검사하고,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하다 기증희망자와 유전적 특성이 적합한 환우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기증시술을 할 수 있다.

▷장기 기증 서약으로 생명나눔 실천

신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인 급성 ·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신장 기증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수가 이달 말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597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싼 수술비와 위험부담을 안고 '중국 원정 이식'을 시도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생전에도 기증이 가능한 신장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을 앓지 않는 사람으로 조직적합성 검사를 거친 후 기증할 수 있다. 신장을 하나 떼어 기증하더라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사후 각막 · 시신을 기증하거나 뇌사 시 심장 · 신장 · 간 등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해놓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후 · 뇌사 기증은 실제 기증을 할 때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청 후 가족들에게 기증 여부를 알려두는 것이 좋다.

이 밖에 후원금 기부와 기증서약 등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 받을 수 있다.(02)734-8050 www.lisa.co.kr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30. 티 클리퍼 레이스

동인도 회사가 차 무역을 독점하던 시기에 대량의 차는 대부분 배로 운반됐고 시간도 오래 소요됐다. 중국 광동에서 런던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4, 5월에 만든 차는 배 출항 시기를 맞추다보면 6월경에 출발해 다음 해에 도착했다.

하지만 독점권이 폐지되면서 차 무역은 자유로운 경쟁시대를 맞이한다. 차 상인은 물론 선박회사들의 경쟁으로 배의 속력이 빨라지게 되었고 1840년 후반부터 클리퍼(clipper)라는 쾌속 범선이 출현하게 됐다. 영국의 레인디아 호는 광동을 출발한지 4개월 만에 런던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그 해에 만든 차를 맛볼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묵은 차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차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한 잔의 차 향기는 영국의 차 시장 뿐 아니라 선박회사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선박업자들에게 더 빠른 운송을 위한 쾌속선을 만들게 한 것이다.

미국은 오리엔탈호라는 크고 속력이 빠른 범선을 만들어 많은 양의 차를 싣고 97일 만에 런던에 입항했다.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신선한 햇차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더 많은 차 애호가들이 생겼으며 어떤 차들은 프리미엄까지 붙어 상인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의 선박 업주들에게 클리퍼 제조에 열정을 쏟게 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쟁으로 많은 쾌속선이 출현하게 되었고 쾌속선의 질이 향상되어 차의 신선한 맛과 향기를 잘 보관하면서 빠르게 운송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영국 내의 차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어 1880년대 후반기의 1인당 차 소비량이 2kg으로 증가됐고 홍차 붐이 일어났다. 또한 이색적인 '티 클리퍼 레이스(Tea Clipper Race)'가 유행하게 되어 종전에 여성들만이 선호 했던 차를 남성들도 선호하게 되었다. 티 클리퍼가 도착하는 달에는 좋아하는 클리퍼에 돈을 걸고 자기의 클리퍼가 해안가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제일 먼저 도착하는 클리퍼를 보면서 열광했다.

선박회사들은 더 빠른 클리퍼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 되면서 티 로드(Tea road)가 5000마일이나 단축되었지만 기선만 통행할 수 있었다. 티 클리퍼로 제작된 범선이 한 번도 차를 싣지 못하는 비운을 맞이하는 커티 샤크 (Cutty Sark)라는 클리퍼도 있었다. 이 배는 팔려 다니면서 이름도 바꾸는 신세가 되었지만 훗날 그 배를 아끼는 영국인에 의해 영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그리니치 부둣가에 전시되어 있다.



쾌속선(clipper, 런던, 보넘 갤러리)

이러한 차의 운송 경쟁은 차 품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차와 어울리는 문화를 형성하여 세계 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1884년 개최된 런던 만국박람회에서 품질이 좋은 홍차를 소개하면서 영국은 국제 차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 특히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실론티 전시관은 멋진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여 높은 홍차 판매 실적을 가져와 실론티의 성공을 이끌었다. 여름철에 열린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에서도 뜨거운 홍차가 인기가 없게 되자 얼음을 잘게 부수어 찻잔에 홍차와 섞어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이스 홍차가 탄생됐다.

쾌속선 출현하며 茶 빠른 운송 시대 열려
영국, 런던박람회 개최하며 국제 시장 주도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6) 금산 보리암

파도소리 아집 털고 觀하라 하네


쌍홍문에서 바라 본 다도해.

남해의 보리암을 비롯해 동해의 홍련암, 서해의 보문사 등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는 모두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이를 두고 조용헌은 '능엄경 수행법의 한 국적 수용'이라는 논문에서 바닷소리(海嘲音)를 관(觀)함으로써 아집을 털고 진리의 경지에 이르는 능엄선 수행을 위해 관음성지들이 파도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리암 설화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역사성이 깃든 것으로는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이다. 이성계가 왜구를 치기 위해 남해안에 왔다가 조선 개국의 뜻을 품고 이 산에 들어와 백일기도를 해서 역성혁명에 성공해 조선을 개국했다는 전설이다.

남해대교를 건너 읍내로 달리다보면 오른편으로 한적한 관음포(觀音浦)를 지나간다. 관음포는 강화도에 이은 제2의 팔만대장경 판각처로 알려진 곳이다. 고려가 굳이 이곳에다 분사도감을 두게 된 것은 해전에 약한 몽고군을 따돌릴 수 있고, 지리산 일대에서 구한 목재들을 섬진강을 이용하여 쉽게 운반할 수 있고, 넓은 갯벌이 있어서 다량의 판각재를 갯벌 속에 묻어둘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음포는 세계 문화유산이 판각된 유적지이지만, 이정표 하나 없이 쓸쓸하고 외롭다.

30번 국도를 타고 앵강고개를 넘어서면 왼쪽으로 금산 보리암으로 가는 길이 갈라진다. 산기슭 곳곳에 편백숲이 짙푸르게 자리하고 있다. 복곡저수지를 지나 보리암으로 가는 좌우 숲길도 편백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1세대 편백은 이미 사라지고, 지금은 20~30년생 2세대 편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리암을 중심으로 하는 금산 탐방은 복곡저수지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보리암을 돌아보고 상주로 내려가는 코스가 무난하다. 그 구간을 탐방 순서대로 셋으로 나누면, 아랫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 보리암 주변지역, 보리암에서 상주 매표소까지이다. 모니터링은 설정한 탐방 경로를 따라 좌우 20m 범위 안에 들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아랫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이다. 마침 도로 확포장공사가 한창이다. 그 바람에 도로변 나무들이 흙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쓰고 있다.

이 구간의 키 큰 나무로는 곰솔과 편백이 곳곳에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참나무 종류로는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가 많았다. 그 밖에 느티나무, 나도밤나무, 사람주나무, 노각나무, 비목나무 등 온대남부수종들이 혼효림을 이루고 있었다. 더러 노거수급 나무도 가끔 눈에 띄지만, 거의가 수령 30년 안팎으로 모두 고만고만하다.

금산은 화강암 암산(巖山)이다. 8부 위로 정상부까지는 온통 기암절벽들이다. 금산의 화강암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붉은 빛이 감돈다. 이 은근한 색깔은 화강암 속에 들어가 있는 칼륨장석 때문이다. 이것이 풍화되면서 은근히 분홍색을 띠는 것이다. 진달래와 철쭉이 필 때면 더욱 잘 어울린다.

보리암.

온통 화강암이라 국지 좁아 가람배치 단순하고 식생 빈약
보리암 가는 숲길 좌우 20~30년생 2세대 편백군락 형성
곰솔 방풍림은 염해 막아주는 역할, 해안가 사찰에 필요

이렇듯 주변지세가 온통 바위다 보니 보리암이 자리한 국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국지가 좁다보니 가람배치도 단순하고, 새벽 도량석도 보광전(寶光殿)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만이다.

종무소인 간성각(看星閣)은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전각이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수명장수를 위해 남극성(南極星)을 보는 간성(看星) 풍습이 있었다. 일명 '노인성(老人星)'이라 불리는 남극성은 아르고 별자리에서 광도가 가장 높은 카노퍼스 별이다. 이 간성각이 바로 그 옛 간성 풍속의 유산이다.

보리암이 자리한 고도는 약 600m로, 금산 전체 고도로 볼 때 8부 정도에 해당된다. 이 구간의 키 큰 나무들로는 소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이 있다. 이대와 조릿대를 비롯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4~5종의 대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주변의 토양유실을 막아주고, 수분을 머금게 하며, 새들에게는 더 없이 아늑한 보금자리와 은신처를 제공해준다.

보리암 경내의 식생조경은 국지가 좁아서 별로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이씨기단 앞에는 해송과 돌배나무가 눈에 띄고, 경내의 함박꽃나무는 탐방 구간 내에서 한 그루만 관찰된 것으로 봐서 식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사람 손으로 심었을 차나무들은 제멋대로 키가 자라 덥수룩하다. 산신각 앞 종려나무는 산의 고도 때문인지 난쟁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 꽃샘추위로 동백은 꽃망울이 누렇게 얼었고, 조경으로 심은 긴잎회양목과 황록사철나무도 눈길을 끌지 못한다.

긴잎회양목은 이름 그대로 잎의 생김새가 일반 회양목에 비해 좁고 길다. 관악산 등지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원산이지만, 근래에는 원예종으로 육종되어 조경목으로 나간다. 황록사철나무는 일반 사철나무와 비슷하지만, 잎에 황색 또는 연두색 무늬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 꽃샘추위 탓인지, 야생화는 현호색과 개별꽃만 꽃을 피우고 있을 뿐, 다른 초본은 땅속에서 아직 고개를 내밀지 않고 있다.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애호랑나비 등 성충으로 겨울을 난 몇 종류의 나비들이 보일 터이지만, 아직은 때가 일러 관찰된 곤충들이 없었다. 남쪽 바닷가 지역이라지만, 고도가 높고 바람이 강해서 곤충출현 시기가 내륙에 비해 빠를 것도 없다.

보리암 주변에는 박새류와 딱다구리류, 붉은머리오목눈이,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까마귀 등이 서식하고 있다. 어느 마음씨 착한 보살이 겨우내 굶주렸을 산새들을 생각해서 좁쌀과 옥수수를 싸들고 와서 놓고 갔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양이 어디 있을까…. 무량자비행이면 기도가 따로 없다.

보리암은 어디에서나 전망이 좋다. 남해의 망망대해와 크고 작은 섬들이 일망무제로 보인다. 가까이로는 승치도, 삼서도, 목도 등이 보이고, 좀 멀리로는 전설의 세존도가 보인다.

발아래로는 금산이 바다와 맞닿은 상주가 있다. 한자로 '尙州'라고 쓰지만, 본래는 관음보살 진신이 상주한다고 해서 '常住'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발아래 곰솔 방풍림(防風林)이 아름다운 숲띠를 이루고 있다. 방풍림은 마을로 불어닥치는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소금기로 인한 농작물의 염해(鹽害)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건축물에도 염해를 끼치기 때문에 바닷가 사찰에서는 반드시 방풍림이 필요하다. 방풍림은 나무 높이의 약 30배 거리까지 바람의 속도를 늦춰준다는 보고가 있다.

보리암에서 국립공원 상주리 매표소까지 하산하는 데는 1시간 남짓 걸린다. 금산 팔경 가운데 풍광이 으뜸이라는 쌍홍문이 그 길로 5분 거리에 있다. 쌍홍문에 서면 멀리 발아래로는 부처님이 돌배를 타고 건너가 머물었다는 세존도가 아득히 건너다보인다.

세 번째 구간 역시 곰솔과 활엽수의 혼효림이다. 사람 손에 식재된 곰솔은 이 구간의 허리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다. 금산은 남해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난대수종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겨우 송악, 보리밥나무, 사스레피나무, 광나무, 자금우 정도가 손에 꼽힐 정도이다. 해발 681m라는 고도 때문이다.

쌍홍문 주변 절벽에 송악이 튼실하게 자라고 있다. 상록덩굴나무인 송악의 고향은 바닷바람이 닿는 따뜻한 남쪽지방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송악을 '담장이'로 알고 있지만, 외모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두 나무이다. 담쟁이는 잎이 지는 떨기나무이지만, 송악은 사철푸른 나무다.

숲길 옆에 자리한 사선대는 4개의 큰 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자로 '四仙臺'라고 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세운 안내판에는 영어로 'four, hermit, bench'라고 해놓았다. '대(臺)'란 전망이 좋은 높은 언덕이나 바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의자'를 가리키는 'bench'보다는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uphill'이나 바위를 가리키는 'rock'이 어떨지….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사선대.


율곡선생이 이름을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나도밤나무.


보리암 송악

발 족 공 고

曉山 門徒會

曉山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문도회 회장 현 덕
회원 법 정 현 월
법 진 해 양
혜 전 서 경
현 진 현 담
혜 월

佛紀 2550년 10月 16日(陰)

영산문도회 063)858-7010
011-658-8032(태봉사 현덕)

"신 수 비 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대행스님

항상 봄처럼 여유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세요!

업과 습이 밝게 녹아지려면

문 메말랐던 가지에 새싹이 움트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봄처럼 밝고 따뜻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쌓아 온 습이 순간순간 나올 때는 '내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물러서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한 가지 경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습이 나오고, 몰랐던 새로운 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맡기고 되놓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봄 햇살에 어둡고 침울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듯 제 안의 업과 습이 밝게 녹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답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봄을 맞이한 듯 날씨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뵐 수 있으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습과 업이 많아서 녹이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나한테 닥치는 것을 그대로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걸 끊어 버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와야 내가 습득을 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나온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습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거기 놓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걸 없앤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인 것이지, 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 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자꾸 하는데요, 나는 그래요. 살아 있는 동물이라면 어떠한 거든지 보면, 들으면,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고 좋고 그것만 아니까, 나쁜 거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합니다. 또 나쁜 거를 불의에 당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그냥 '아, 이 주인공 놈이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에 그냥 막혀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 나와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좋은 생각을 해서 습이라고 안 그랬더라면 좋은 행이 그대로 나오고 좋은 경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건 또 습이구나. 요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뭡니까? 저 무학 대사가 꿈 해몽한 이치요. 이성계의 꿈 얘기 한 거 있죠? 만약에 무학 대사가 그 꿈을 그대로 나쁘게 해석을 했다면 나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이끌어 주니까 그냥 지금 말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냥 우수수 다 져 버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어!' 하고 모두 탄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 절대로 꿈이 이렇다고 해서 언짢아할 일이 없고, 바꿔서 자꾸 써라.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꿔서 새 물로 쓰고 이렇게 자꾸, 맛없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 먹어라.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자재하질 못합니까? 돈이 들어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누가 막아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도 어떤 양반들은 꿈을 꾸고선 "아이구,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 생각이면 바꿔 쓸 거를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주인공 놈이니까, 그냥 주인공 놈이 과거도 살았고 현실도 살아나가니까 그저 과거 것이든 현실 것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주인공, 네놈이 해결해!' 하고 다 거기다 맡기세요. 내가 있다고 세우지 말고요.

맡겨도 되지 않는데…

문 스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만들어 낸 그 자리에 맡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맡겨도 일이 해결이 되질 않는 것인지요?

답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중에 "아, 주인공에다가 관했는데도 안됩니다. 잘되다가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났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도 그대로 있는 물건이 없고요. 말도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그걸로만 고정되게 말을 하는 것도 없고요, 보는 것도 그렇고 모두 일체 만법이 다 고정됨이 없죠. 그런데 어찌 되는 것만 되고 안되는 거는 없으리까. 왜냐하면 안되는 것도 있어야 그 시련 속에서, 되는 거 안되는 거 그 가운데서 깨닫죠.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나는 데에 지금 행을 하는 겁니다. 그 행이 없다면 자기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작업이라야만이 자기 성품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되놓아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고 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 딴 사람한테 미루어서 또 딴 부처님을 찾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저지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지금 하고 가고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거는 네가 거두어라." 하고 아마 훈계하실는지도 모르죠.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도리가 많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여러분이 행하고 과거로부터 행하고 왔던 거 지금도 행하고 가는 거, 그걸 여러분이 하고 있지 누가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발부리를 차여서 피가 나도 여러분이 각자 "아이고!" 하고, 자기가 그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보현신이 돼서 자기를 어루만진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대신 와서 아파 줄 리가 없죠. 딴 사람이 만져 주기는 할지언정 아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 자체에서 아프고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행한 거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되놓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둬라. 너만이 거둘 수 있어!' 이렇게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숙달이 되고 거기에서 미묘한 법을 발견해 낸다면 감응이 되겠죠. 이것이 차차차차 감응이 돼서 커진다면 이게 바로 성품을 발견해 내는 도립니다.

무조건 "나는 주인공에 관(觀)했는데도 왜 안되느냐?" 하시는데 하! 진짜로만 했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만날 자기 이외의 주인공으로 아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라는 걸 어찌 모릅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두는 걸 어찌 모릅니까? 세계적으로 종교를 모두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타신에게 기도하고 상대를 보고 믿고 찾게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속에서도 헤매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회오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도 죽고 사는 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자식을 낳고 알을 낳고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 버리고 이러는 시련을 겪으면서 진화가 돼서 땅 위로 올라왔어도, 땅 위에서도 지금 물주머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형상을 믿거나 딴 데 이름을 믿거나 허공을 믿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득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부터 먼저 알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은 한 구멍이니까 그 한 구멍에다 놓고 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인공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즉 자기 탓이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의 이름! 왜냐하면 고정됨이 없이 끝없이 돌아가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고정됨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되놔라. '네가 저지른 거라면 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머리가 잘못 돌아가서 잘못된 거라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모든 거를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니까. '주인공!' 하면 전체 거기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몸속의 생명의 의식들도 모습들도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주인공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품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감응도 뵐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타신을 찾아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 보인다 들린다 이런다면 그건 미치는 발광쟁이가 되죠. 내면에 자기 주장자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정의정당하게 생활을 하게 만들죠.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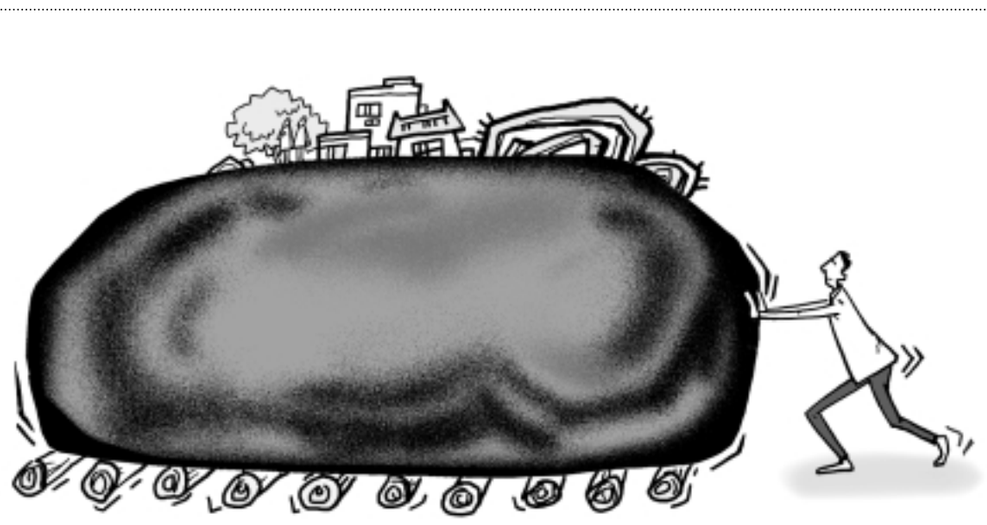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전수자)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년과정	2007년 3월~6월	★기초: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홍선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 등 ★예불: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삼보통청(사시불공),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장의편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07년7월 ~ 08년2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 등게, 삼귀의, 합장게, 고향게 개계,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헌좌게, 욕건이, 향수나열 운심게, 가지게, 인성이	전통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막바라요잡 도량게, 다게 나비춤(착복) 태징타법
2학년과정	2008년 3월~12월	천도의식 상단권공 및 시식	법주 바라지, 관욕, 화의재 바라 신중단작법, 회심곡, 축원화청
	2009년 1월~2월	시연회 준비-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사물다루는법, 점안의식 특강 : 법고(북춤), 공덕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07년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2시~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2년 총 8학기 학기당 300,000원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종무원부설 범음범패교육원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시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3매, 주민등록등본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종무원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29-21)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7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

가. 기초과정
● 송 주 : 도량석 ,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 사성례 , 칠정례 , 오분향례 ,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 각단불공

나. 전문과정
● 상주권공 : 시련,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104위) , 상단권공, 중단권공,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회향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전통의식타법)
※ 광쇠 ,호적
● 특 강 : 괘불이운,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재의식 등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07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범음범패) 회원모집

- 도량석 종성 향수해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신중청등 각단불공
- 관음시식 전시식 구병시식 화엄시식
- 상용영반 종사영반 봉송(경신 삼단도배)
- 정기법회 특별법회 가정법회 방생법회
- 상장례의식(시다림염불) 안택 고사
- 상주권공재 각배(약례)재 예수재 수륙재
- 화청 축원화청 회심곡 (서울경기 영남)
- 바라 작법(나비춤) (서울경기 영남)
- 신중작법 104위(팔공산) 39위(서울경기)
- 점안(불상 탱화 가사) 괘불(삼신)이운
- 주요의식과 경전의 우리말 진행 독송법

● 마음 맞는 도반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목탁과 요령의 행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 북 태징 등을 좀 쉽게 잘 배워 보십시오.
☞ 우선 목탁 요령 녹음기 들고 그냥 오십시오.
● 반드시 만족하실 것입니다!
● 상반기 마지막 광고입니다 메모 잘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

⦿ 스님과 재가불자 회원을 항시 모집합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공부합니다.
☞ 경부선 영천 IC → 첫 번째 신호 좌회전 → 직진 막다른 길에서 좌회전 5분거리
慈 光 園 (동림한방병원 옛 초등학교)
☎054)336-4475~6 / 010)4579-0408
교육원장 혜명 지운 지도법사 석원범

대경범음범패연구보존회원 합장

나오는 대로 자기 안에다 놓고 행하면 그대로예요!

☞21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관했는데도 왜 안됩니까? 나는 관하는데도 안됩디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주인공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짓을 하니까 그게 안되죠. 진짜로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가 현실에 사는 자기와 둘이 아닌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고인 물을 그냥 둔다면 썩어 버리지만 자꾸 새 물이 들어오고 고인 물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물은 아주 청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목석이 되는 것이고 또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서 자꾸 굴리면 바로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자꾸 넓어져서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공부 욕심은 필요할 것 같은데…

문 스님께서는 이 공부를 해 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놓으면서도 나름대로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체를 맡겨 놓고 관하여 보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욕심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 분수대로 자기가 능력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겠죠. 지금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인공, 자기한테 되놓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한테 그냥 다 놓듯이, 현재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게 바로 삼심(三心)이 일심(一心)으로 공(空)했으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한테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자체, 자기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놓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네가,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너만이 건강하게 이끌 수가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화목을 도모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공을 얍삽하게 보진 마십시오, 포괄적인 자기니까요.

그리고 또 관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이,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몸부림 안 치게 생겼나. '네놈으로 인해서, 네놈으로 해서 이게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놈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딴 놈이 거기 개재하는 게 아니니깐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그놈이 지금 모두 하고 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부처님더러 요놈 조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놈이 한 거니까 제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 요거 작업부터 해야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안 해 놓고 밥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씻어서 밥을 해서 다 해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떠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떠먹을 때 맛을 알죠. 이건 해 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살아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번 선의 칼을 뺀 거와 같이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냥 끼울 수는 없다고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네가 그렇게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도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전부 일을 저질러서 요렇게 살게 만들어 놓은 것도 너고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놈한테다 제가 한 일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소릴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고 살랍니까? 회답을 아주 말끔하게 씻어지게 하진 않았지만 공부한 것도 말끔히 씻어져서 공부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잘 그렇게 해 보신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관심과 사랑도 착인지요?

문 저희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가족이나 회사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아껴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이라는 것과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과 사랑도 착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글쎄, 자식들 때문에 안달을 하든 또는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정치 때문에 안달을 하든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나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열 번 뛸 거 한 서너 번밖에 안 뛰거든요.

그대로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서 주인공 따로 또 두고 그럽니까. 그럼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습이 돼서 이렇게 뛰는구나! 이거 주인공한테 다 놓지 않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또 사업을 위해서 뛰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렇게 지금 하고 가는 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것은 자기더러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둘로 보질 말아요. 둘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나는 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뛰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주인공 시자니까. 마음의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뚱이와 생명과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나는 착이 있고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뛴다고 생각질 말고, 그대로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둘로 볼 것도 없고요.

> "구정물이 들어오면 새 물로 바꿔 쓰고 맛없는 게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 먹으세요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재사 지내는 도리에 대해서

문 선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도입니다. 다른 절에서는 재사를 지낼 때 의식도 그렇지만 재사 상도 많이 장만을 해서 지내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사 지내는 도리에 대해서 설하여 주십시오

답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님들이 절에서 보통 이렇게 차려 놓으면 스님들이 어느 만큼 차려 봤다는 걸 영령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령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스님들 마음부터 보거든요. 마음부터 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상 차려 놓은 거하고, 돈 얼마 가져온 거하고, 돈 얼마 놓은 거 그것만 알고 있다면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만 알겠죠, 뭐. 영명(靈明)하죠.

그러나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탁 소리는 우주 법계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이 탁 열렸으니깐 상을 안 차려 봤어도 그렇고 차려 봤어도 그렇죠. 모든 게 내 거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아니, 그 영령들이 그 스님들의 마음에 탁 가서 하나가 됐는데 뭐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 한데 합쳐져도 두드러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풀려서 제도가 돼도 줄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여기서 천도재를 지낼 때 물건을 많이 사다가 상에 온통 쌓아 놓고 지내야만 잘 지내 주는 걸로 아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사면, '아이, 물건도 안 사는데 뭐 돈 이것만 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습을, 항상 얘기하듯이 일차적으로 그렇게 독사의 무명을 타고났거나 또는 어떠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헤매고 있는 그런 지옥고를 범했을 때, 이 공부 하면서 그것을 면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거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 대로 지은 대로 콩 나고 팥 나듯이,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이 지옥고입니다. 오간지옥고니 하는 그 오간지옥이란 것은 땅속에서 파먹고 땅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오간지옥입니다.

그러니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의 그 마음, 즉 영령을 탁 건져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 놓는다면 금세 제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형제의 그 무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가 하면,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못하고 업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건지려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령들의 의식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스물도 되고 이럽니다. 돌아가셔서 천도재를 했으면 아이, 제사(祭祀)도 안 지내야지 왜 지내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 된 도리죠. 잘됐든 못됐든 자식이 된 도리예요. 묵은 빚 갚아야죠,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못 갚으면 자기 대에서 또 자기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 허명무실하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 상을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뜻있게 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떡 한 그릇이 되남도록 해라 이런 겁니다. 물과 초, 향 그거면 족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모든 빗방울이 바다로 들어간들 빗방울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의 물이라고 하지. 수만 개의 영령들을 한마음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럭하면 더 집안이 깨끗하고 더 청정합니다.

천도를 스님들한테 청하되 무엇을 많이 차려 놓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제사 지낼 때 찹쌀가루를 해서 뚱그렇게 그냥 부쳐서 아홉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세 조각 이렇게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만 해 놓고 지내신다면 그것으로써 족합니다. 환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물 먹고 떡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은 벌써 그건 아주 하의 중생들의 얘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떡, 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의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리고 절 삼정례(三頂禮)를 할 때에, 맨 끄트머리에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일어난다면 아주 그것이 극히 좋은 일입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 달라고 그래서요, 초하고 물하고 향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틀림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벌써 영령들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내 주고 다녔어요. 그 뭐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녀요, 무슨 뭘 들고 다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 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요? 내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는 겁니다.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해광 하순천 지음/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372쪽/15,000원

해광 하순천 관법명인이 밝히는 하늘도의 기도와 수도의 과정, 사후세계의 비밀, 전생과 현생, 신의 세계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 책으로 출간되다!

1부 신도神道를 닦다
하늘의 도를 만나 저자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된 세계, 저자가 하늘도의 세계에 입문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중 증거인이 되어 증거하게 된 하늘 일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

2부 죽어서 가는 길
사후세계의 비밀, 사람의 사후세계의 세 가지 모습
당신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3부 전생과 현생
저자 자신이 직접 본 자신의 전생, 그리고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과 가피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답들이 저자 자신의 체험, 기도, 수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의 : 도서출판 대도대한
전화 : 02)575-5162
www.ddblog.co.kr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를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서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당치않는 분들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성진 합장 031)673-1087
남 · 여 행자승 모집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제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심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과광고

- 사찰명 : 보림정사
- 법 명 : 성원
- 주 소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669

- 사찰명 : 묘관사
- 법 명 : 대경
- 주 소 : 강원 영월군 하동면 666

위 두스님은 2007년 1월 31일 현대불교신문 탈종공고 대표자 스님의 착오로 인하여 본인 의중이 잘못 전달되어 탈종되었으므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영산대 교수

'정교분리' 와 대선주자들

금년에 치룰 17대 대선에는 시장 재직 당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종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인사가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고 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성직자 한 분은 시민정치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세력의 대표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치열한 세력경쟁을 보이면서도 한민족 특유의 상생과 조화의 정신 속에서 지켜온 절묘한 종교간 균형과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치는 권력, 부, 명예 등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다룬다. 가치가 공평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가치배분에 있어서 특정집단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기 종교를 최상의 것으로 믿는 종교집단 중에서 특정한 종교를 정치가 지원하게 되면 그 사회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다. 그래서 현대 국가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중요한 요소로서 종교적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개인의 종교 활동은 종교의 자유에 속하지만 공직자로서 특정종교 편향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신에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와 함께 무신앙의 자유, 다른 종교에 의해 강제 받지 않을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근대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는 인류 역사의 경험과 인권 사상의 발전에서 정립된 것이다. 인류 역사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할 때도 반대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할 때도 인류의 불행을 경험하였다. 서양은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하던 중세 1000년의 암흑시대를 경험하였으며 정치세력화한 종교 간의 투쟁으로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30년간의 종교전쟁을 치루고 나서 근대 민족국가를 탄생시켰다. 또한 정치가 사상과 종교를 지배하던 파시스트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폭력과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때는 인도의 아소카 대왕의 치세였다. 당시 왕은 불교를 신봉하고 그 이념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았지만 종교적 관용을 지침으로 삼아 다른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존중하였다. 전통시대에 중국에서도 주자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기에 따라 유교, 또는 불교가 지배적인 국가이념이 되었어도 종교적 관용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주자학이 지배한 조선조에서 불교는 500년 동안 멸시와 억압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정교분리원칙이 깨지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가 정치를 장악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종교는 바로 불교일 것이다.

인간 영혼의 구제를 담당하는 종교의 영역과 권력을 배경으로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배분하는 정치의 영역은 서로 다른 것이며 두 영역이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어 각 부분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건전한 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사회, 다종교 다문화 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서 사상과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지키는 일은 종교간의 평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일이며 다종교 사회에서 모든 종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불자의 눈

석가탑 출토유물 일체 '반환 원칙' 먼저 지켜져야

국보 제126호인 석가탑 출토유물을 종단으로 돌려 달라는 조계종과 난색을 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은 3월 26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열리는 전시회에서 석가탑 출토 유물 일체를 공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시 3일전인 23일 현재까지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물을 제외한 출토유물은 반환하겠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이 전달 됐으나 조계종은 '일괄반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줄다리기는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조계종의 입장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이 근본부터 다르다는 점을 짚어 봐야 한다. 조계종은 석가탑 출토유물의 원래 소유주는 조계종이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 했던 것임을 내세운다. 이제 불교중앙박물관도 문을 열게 되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생각은 다르다. 조계종 소유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크게는 국민의 문화유산이고 보존 시설이나 안전성 면에서 더 안심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연구와 보존을 이유로 조계종으로 돌려주는 것을 꺼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논리에 수긍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 기관에 위탁 보관되어 온 문화재는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처사가 왜곡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조계종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보존처리나 학예 시스템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모든 불교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유물로만 본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종교성을 두고 볼 때는 조계종의 입장이 흐려져선 안 될 것이다.

입장차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양보심을 발휘하면 더 좋겠지만 어느 한쪽이 자세를 낮출 때 극복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먼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물을 포함한 출토유물 일체를 조계종에 반환하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게하고 다시 수탁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방향을 잡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계종으로 반환한 것이 되고 보존과 연구 활동도 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다 목적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조계종도 집안을 보다 확실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역할과 가치를 십분 살려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불교문화유산들을 수장하고 전시 하는 것이 불교중앙박물관의 근본적인 역할이다. 박물관은 수장과 보존처리 전시기획 등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뒷받침 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려하는 이 분야에 대한 조계종의 대책이 보다 명쾌하게 나온다면 앞으로 '반환'을 둘러싼 갈등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4. 광신적 전도, 종교성 잃어

무례 넘어 공격적인 전도행위 지양…존중·이해 필요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수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연인간의 종교 갈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 연인 10명 중 4명 꼴로 종교 갈등을 경험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종교 문제로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특이할 점은 종교 갈등이 주로 불교와 기독교 사이(47%)에서 있었다는 점이다. 불자로서 우리 사회의 종교간 불화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예일대를 졸업하고 숭산 스님을 만나 한국선불교를 접한 후 승려가 된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 다가와 "예수 믿으세요, 부처는 사탄입니다. 왜 기독교나라에서 온 당신이 머리를 깎고 마귀의 종교를 믿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현각 스님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라고 답해 주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그렇게 응대했다니 어지간히 짜증스러웠나 보다. 어떤 스님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천당 갈 수 없어요" 하는 말에 "관상을 보니 하나님이 천국에 빨리 데려갈 상이군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니 먼저 가시지요" 하고 비꼬아 질겁하고 사라지게 했다고도 한다. 또 어떤 이는 금강산 신계사 주지스님께 "신계사가 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된 것은 신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긴 승복을 입은 스님들에게까지 무례하게 전도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오죽할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시도 때도 없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논쟁하려 들기도 한다. 그들에겐 좋은 것을 알려준다는 호의이거나 선교훈련의 일종인지 모르겠으나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가실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타인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는 무지하고 몰상식하기는 하나 순진하다 할 수도 있다. 타종교인에 대해 분명한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지나친 종교 강요나 전도 때문에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지나쳐 어린 학생들에게 "불교는 마귀의 종교"라고 가르치거나 불교집안의 학생에겐 "사탄을 믿는 아이"라고 낙인찍어 따돌리기도 한다니,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아이의 상처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교사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80년대엔 자칭 전직승려였다는 사람들을 앞세워 불교비방 집회를 하거나 신문광고를 내는 등 자극적 도발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불교행사 안내지나 플래카드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몇해 전 내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불교 동아리에서 현각스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교내에 붙여진 수십 개의 안내문이 하루만에 모두 떼어 없어져 황당했던 기억도 있다. 사찰이나 불상에 빨간 페인트로 칠을 하거나 십자가를 그어 놓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동국대 훼불모습.

어디 그뿐인가. 아예 내놓고 공격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심신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불상의 목을 자르거나 사찰 방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 세계 최초로 불교방송이 개국된다고 하여 불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개국 바로 전날 이교도에 의해 불교방송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은 얼마나 충격이었던가. 기독교 방송은 1954년에 개국하여 훨씬 많은 지역국을 갖춰 놓고 수십 년 간 선교방송을 해온 사실을 생각하면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불교 동아리에서도 가끔 불상이 파괴되기도 한다. 전국의 사찰과 불교시설이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고,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무종교 또는 타종교인들에게 무례를 넘어 이렇게까지 공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의 사전에는 '예의'나 '배려'라는 단어조차 아예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공격성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교리 해석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증오심과 적개심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종교 교육은 없었는지, 종교인 각자는 물론 교단적 차원에서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극소수 광신자들의 일탈행위라고 짐짓 모른척하기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나아가 사회 통합을 심각히 저해하는 암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포장된 위선과 배타를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의 종교와 인격에 대하여 생각하는 훈련이 절실하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광신적 전도행위는 오히려 종교성을 훼손할 수 있다. 종교학자 장석만은 "하나의 종교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때는 항상 불행했다. 종교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지닌 가장 고귀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쓰는 측면이 있는 한편 인간의 잔인성을 거리낌 없이 배출해온 측면도 있다. 그래서 종교인은 항상 '다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충동을 이기기 위해 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종교의 이중성에 대해 늘 되돌아 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노부모님 효도 선물로 대인기!

근육(어깨, 허리, 무릎)통증의 해방!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 – 파워봉

이제 파워봉으로 목, 어깨, 무릎, 허리, 발목 등의 고생스런 근육통증에서 벗어나세요

쑤시고 결리는 오래된 근육통증 너무나도 쉽게 완화!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느낌이 팍~ 옵니다.

근육통증이 있는곳에 어디든지 지그시 눌러만 주세요



파워봉 29
180,000원

파워봉은 컴퓨터, 골프, 등산, 운동, 가사노동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육계 통증 – 목, 어깨, 무릎관절, 허리, 고관절, 미골근, 발바닥뒤꿈치, 발목, 손가락, 엘보 등의 **근육통증을 완화시키는 침봉식 의료기기**입니다.

밧데리나 전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여 등산, 낚시 여행 시
간편한 휴대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의 실용신안특허 및 의장등록



골반사랑 의료기는
정부공인 KGMP 인증기업입니다.

지긋지긋한 허리근육통증엔 골반사랑101이 있습니다.

누워만 있어도 허리근육통증이 싹 ~

이제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로 허리근육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쑤시고 결리는 허리근육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게 희소식!

골반사랑-101 (의료용 자기 발생기)
300,000원 (베개+벨트 증정)



<아침, 저녁 20분씩 사용하시면 허리가 상쾌해집니다.>

식약청 제조업허가 제2120호 품목허가 05-50호, 07-8호

의료용 자기발생인 골반사랑-101이 국내에서 맨 처음 개발되어 허리 근육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골반사랑-101은 의료용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근육통증을 완화의 목적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써,
골반(엉덩이)에 받치고 누워있는 것만으로 허리 근육통증을 완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반사랑-101은 우수약품제조 및 품질기준인 KGMP인증업체 골반사랑의료기 가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신개념 의료용 자기발생기입니다.

www.GB101.co.kr 농협 : 1149-12-090771 (예금주 : 이영숙) 후원 : 천일기공연구회

제 조 원 : 골반사랑 의료기
문의전화 : (02) 3436-3206

부 산 : (051) 553-3113 서 산 : (041) 667-5966
광 주 : (062) 222-1477 영 주 : (054) 637-9810

대리점 모집중